

‘왕서방’ 제주서 부동산 錢의 전쟁

중국인 취득 토지 제주 면적의 0.17%… 2311억 규모
휴양·레저·오락시설 대거 유입…무분별한 개발 우려도

중국 기업들이 ‘제주도’를 무대로 벌이는 ‘썬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큰손들은 휴양·레저·오락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제주 앞바다를 뚫고 들어오는 중국 자본의 규모는 2311억4500만원으로 외국인 투자자 중 단연 최고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규모(누계 기준)는 올 1분기 말 기준 322만948㎡로, 외

국인이 사들인 전체 토지(1106만3512㎡)의 29.1%를 차지했다. 제주도 전체 면적(1849.2㎢)으로는 0.17%를 차지해 전년(0.12%)에 비해 상승했다. 필지로는 4168필지로, 1년 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금액상으로는 2311억4500만원으로 외국인 투자자 중 단연 최고다.

현재 제주도 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관광개발사업 대부분은 중국 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드림타워,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드림타워, 제주헬스케어타운 프로젝트 비용만 2조원을 넘는다.

중국 란딩그룹과 싱가포르 업체의 합자회사인 란정제주개발이 추진하는 3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분마그룹의 분마이호랜드, 홍유개발의 차이나비온드힐도 중국 자본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인 수요를 잡기 위해 제주도에선 특별로 소유가 가능한 분양형 호텔 공급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분양형 호텔 공급은 1443실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0실 이상이 공급됐다.

그러나 무분별한 투자 유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자본이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갈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 호텔 등을 짓고 나서 팔아버리고 한국을 떠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된 온 국내의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는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진정으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자인지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영만 기자 kwan@

더낸 세금 환급요구 5년으로 기한 연장

앞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내년 1월 1일 경정청구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 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과세 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제기법법상 국제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이에 반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 된다.

정부는 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 당국이 세무조사 결과 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기재부는 올 연말 ‘1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교황 방한 D-3…기쁘다 ‘파파’ 오시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사흘 앞둔 11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교황의 방한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행정공제회, 3000억 규모 獨 부동산 투자

캐나다 상장 리츠와 파트너십
배당수익 6.5캐시온캐시 기대

행정공제회가 3000억원 규모의 독일 부동산에 투자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캐나다 상장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인) ‘드림 글로벌 리츠’와 상호 전략적 파트너 협정을 맺고 이들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300여 개의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행정공제회는 드림 글로벌 리츠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닌 합작회사(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자산 투자에 나선다. 지분 비율은 50대 50이고, 행정공제회는 합작회사를 통해 드림 글로벌 리츠의 자산 50%를 보유하게 된다. 자산의 가치는 약 3000억원이다.

이번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은 배당 수

익으로 6.5캐시온캐시(cash on cash)일 것으로 전망된다. 캐시온캐시는 실제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액을 세금 납부 전의 현금 흐름으로 나눠 값을 구한다. 예를 들어 1000원을 투자할 경우 65원의 수익이 난다는 의미다.

이번 투자는 현재 독일 담보 대출기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늦어도 1~2주 안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eugene@

숫자로 본 명량의 기록들

68만

역대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

125만

역대 최고의 일일 스코어

2일

최단기간 100만 관객 돌파

7일

개봉 7일만에 손익분기점 650만명 돌파

833억원

개봉 12일간 누적 매출액

최단기간 1000만… 리더십 갈증 풀어준 ‘명량’

개봉 이후 관객동원 연일 신기록
최고 흥행작 ‘아바타’ 제압도 눈앞

영화 ‘명량’(제작 빅스톤픽처스, 배급 CJ엔터테인먼트)이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CJ엔터테인먼트는 10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를 인용해 ‘명량’이 이날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명량’이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서는 것은 종전 최단 기록인 ‘괴물’(22일), ‘도둑들’(22일)보다 10일이나 앞선 신 기록이다. 또 ‘명량’의 1000만 돌파는 한국영화로는 10번째, 외국영화까지 포함하면 12번째다.

▶관련기사 8면

‘명량’의 행보는 한국영화사 그 자체였다. 역대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68만), 역대 최고의 평일 스코어(98

만), 역대 최고의 일일 스코어(125만), 최단 100만 돌파(2일), 최단 200만 돌파(3일), 최단 300만 돌파(4일), 최단 400만 돌파(5일), 최단 500만 돌파(6일), 최단 600만 돌파(7일), 최단 700만 돌파(8일), 최단 800만 돌파(10일), 최단 900만 돌파(11일) 등 연일 신기록을 수립했다. 수익 규모도 엄청나다. 제작비 180억원이 투입된 ‘명량’은 지난 5일 개봉 7일 만에 손익분기점 650만명을 넘어섰다. 10일 기준 ‘명량’의 누적 매출액은 833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명량’이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데에는 성용 이순신의 힘, 리더십 부재 현실 속에서의 진정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 최민식의 열연 등 영화 내·외적 이유가 있으며 이 같은 흥행 추세라면 1330만명을 기록한 ‘아바타’를 누르고 흥행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sun@

알립니다

‘위기의 한국경제를 구하라’
최경환 경제팀의 과제는…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 모색 토론회’ 20일 은행회관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홍중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
범취버린 기적 새로 쓰자
-2기 경제팀의 과제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했습니다. 뇌사 상태인 실물경제를 살려내 한국경제를 재도약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최경환호는 ‘범취버린 기적’을 새로 쓸 수 있을까요?

가혹하지만 만큼 박찬 임무임이 틀림없지만 결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기적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커 가는, 보다 진화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적을 새롭게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오는 20일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014 범취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 주제로 진행됩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출범과 맞닿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본지에 연재 중인 동명의 기획시리즈를 총정리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토론회는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가 주제를 발표한 뒤 패널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패널로는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와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홍중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의 대표적 경제통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기획 5면

■ 일 시 : 2014년 8월 20일 오후 2~4시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이투데이

■ 후 원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선진화포럼 건전재정포럼

■ 문 의 : 토론회 사무국(전화 02-799-6784, 2655)

숫자로 본 NEWS

2분기 영업이익 ‘1조클럽’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1

삼성전자
71,873.23

현대차
20,872.15

SK하이닉스
10,838.67

10대 그룹 시가총액 합산액
727조20억원 (8월7일 종가기준)

307조6094 (삼성)

151조5904 (현대차)

89조7749 (SK)

‘1조클럽’ 3년 전의 1/3 수준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1조클럽’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3곳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7조19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차 2조900억원, SK하이닉스 1조800억원 순이었다.

강인호 기자 kangih@

10대그룹 시총 올들어 1% 감소

올 들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 규모가 지난해 말보다 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 감소율이 높았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증가 기준 10대 그룹의 시총 합산액은 727조20억원으로 지난해 말(733조2707억원)보다 0.85%(약 6조2700억원) 감소했다.

10대 그룹 중 시총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 말 23조8825억원에서 13조9625억원으로 41.54%나 감소한 현대중공업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정지선 회장



강석희 대표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Biz

월요섹션
19~21면

커버스토리
대한민국은 ‘아웃렛 공화국’

정지선, 위니아만도 품고 ‘생활가전’ 날개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지분 100% 인수… ‘종합 유통서비스’ 도약 가속도

2020년 매출20조·이익2조 ‘비전 2020’ 성공 행보

현금 바탕 M&A 큰손…범현대가 3세 입지 강화

정지선(사진)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종합 유통서비스 회사’ 비전에 속도를 낸다. 김치냉장고 ‘딤채’, 에어컨·세탁기 ‘위니아’ 등으로 유명한 위니아만도를 인수해 생활가전부문에 날개를 다는 것.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7일 CVC캐피탈파트너스와 위니아만도 지분 100% 양수도계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CVC캐피탈파트너스는 1999년 한라그룹에서 위니아만도를 인수한 글로벌 사모펀드다.

매각액은 1500억원 규모로, 실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실사 준비단계이며, 매각주관사 골드만삭스가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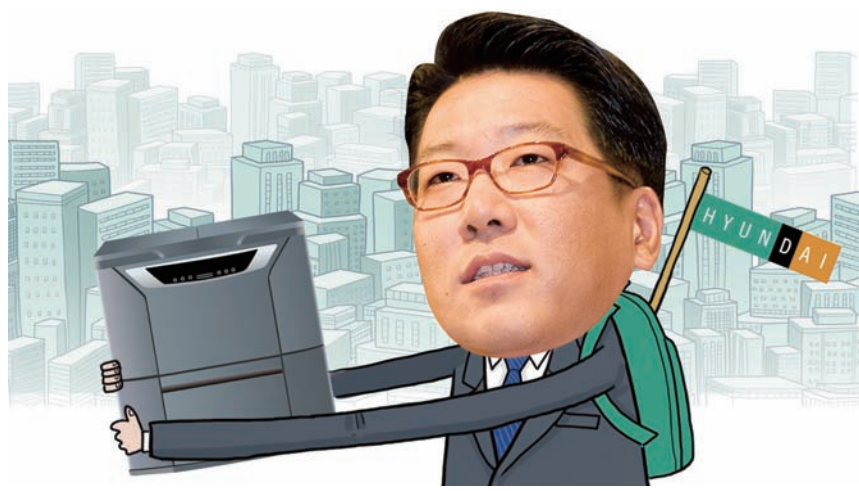
이번 위니아만도 인수는 정지선 회장의 ‘비전 2020’ 실현 과정으로 해석된다. 정 회장은 2010년 창립 39주년 기념식에서 “2020년까지 그룹 매출 20조원, 경상이익

2조원을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형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비전 2020’을 발표했다.

실제로 2003년 취임 후 내실 다지기에만 주력했던 정지선 회장은 2010년 이후 외부로 눈을 돌렸다. 현금만 1조원을 보유한 만큼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M&A의 큰손으로 떠오른 것. 정 회장은 2012년 2월 리바트, 3월 한섬을 사들여 업계를 놀라게 했고 올해 초에는 동양매직 인수를 추진했다.

현재까지 정지선 회장은 비전 2020을 향한 성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매출은 정 회장 취임 당시 5조5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2조원까지 늘었다. 비전 2020을 위해서는 유통업 성장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지선 회장은 해법으로 고객에게 ‘토틸 라이프케어’를 제공하는 ‘종합 유통서비스 회사’를 내놓았다. 유통업과 제조업



의 시너지를 통해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존 유통채널(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식품(현대그린푸드), 의류(한섬), 가구(현대리바트)에 생활가전(위니아만도)을 더하면서 토틸 라이프케어 진영도 단단히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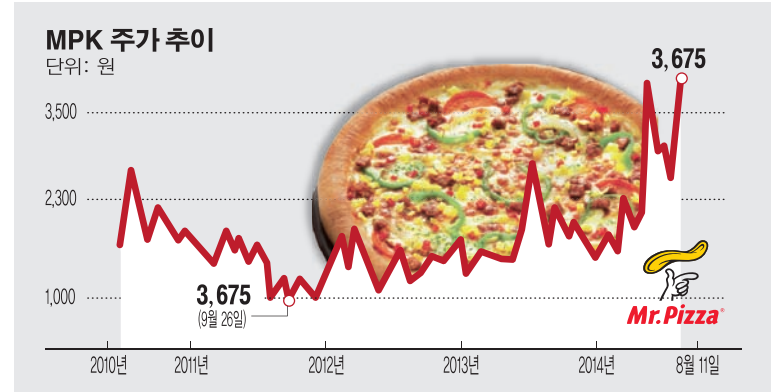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기존 가구·식품·유통에 생활가전을 더해 고객을 위한 토틸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종합 유통서비스 회사로 한 걸음 더 나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대백화점그룹의 위니아만도 인수는 정지선 회장이 ‘범현대가’ 3세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 위니아만

도는 한라그룹 계열 자동차부품회사인 만도기계(현 만도) 공조사업부 가전부문에 출발한 회사다. 한라그룹 창업자는 정주영 명예회장 동생인 정인영 회장으로, 정지선 회장에게는 작은할아버지다.

위니아만도는 1995년 세계 최초로 김치냉장고 탑재를 선보이며 승승장구했지만 1999년 한라그룹이 해체되면서 가전부문만 분리돼 CVC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CVC는 2006년 10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고, 2000년대 후반부터 위니아만도 매각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위니아만도는 매출 4127억원, 영업이익 168억원을 기록했다.

이달라 기자 zing@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미스터피자’ 투자금 회수

〈MPK그룹〉

4년 만에 156억원 ‘대박’

1조원대 거부로 알려진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이 MPK그룹(옛 미스터피자)이 지난 2010년 최초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지 4년 만에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민주 회장이 이 기간동안 풋옵션 행사를 비롯 장외·장내 매도로 인해 거둔 차익은 113억원

또 최초 BW 발행 당시 이 회장은 권면총액 100억원에 해당하는 워런트 553만4034주를 주당 54원에 MPK 최대주주 정우현 대표이사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굿타임에 장외 매도했다. 이 회장은 워런트의 일부 매각으로 인해 3억원가량을 손에 넣었다.

이 회장의 풋옵션 행사에도 신주인수권(워런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신주인수권행사 만료 기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이 회장이 잇따라 워런트를 행사한 것이다. 워런트 절반을 굿타임에 장외 매도하면서 이 회장이 보유한 이 회장은 최근 워런트 행사로 전

면 이 회장은 최근 워런트 행사로 전

2010년 200억 규모 사모 BW 투자…풋옵션 등 차익

신주인수권행사 만료 1년 앞두고 잇따라 워런트 행사

환된 보통주 553만3596주(지분율 7.59%) 중에서 373만3596주를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했다. 이로써 이 회장의 보유 주식수는 180만주(2.47%)로 줄어 들었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이 현금화한 금액은 약 111억원이다.

앞서 이 회장은 MPK가 지난 2010년 7월 20일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제1회차 분리형 사모 BW에 투자했다. 사채 만기일은 오는 2015년 7월 22일까지였으나, 지난 2012년 7월 23일 사채권자인 이 회장의 풋옵션 행사로 MPK는 만기 전 사채를 216억3200만원에 취득하면서 제1회차 BW의 Bond(채권)를 소각했다. 이 회장은 Bond 투자로 16억3200만원(수익률 8.16%)을 손에 쥐게 됐다.

줄어들었지만, 이후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금액 조정으로 인해 이 회장의 보유 워런트 수는 790만5138주로 늘어났다.

최초 발행 당시 주당 1807원에서 1265원으로 하락한 가운데, 이 회장은 지난 6월 5일 보유 워런트 중 79만513주를 신한금융투자에 주당 1761원에 장외 매도하며 14억원가량을 현금화했다. 주당 차익이 496원으로, 전체 매매차익은 3억9200만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같은 날 158만1027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 전부를 장내 매도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46억원 이상을 현금화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교육에 전념” 이승한 회장, 15년 집권 홈플러스 떠난다

사회공헌재단 이사장·경영 자문 등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지나해 경영일선 떠나 보스턴대학서 창조경영 연구에 매진

유통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인 이승한(사진) 홈플러스 회장이 15년 만에 모든 직위를 내려놨다. 험난했던 한국 대형할인점 시장에서 15년간의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다.

지난 8일 이 회장은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통해 사내 게시판에 모든 회사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재단 홈플러스 e파란재단 이사장, 테스코·홈플러스 아카데미원수원 회장 겸 석좌교수, 테스코그룹의 경영자문역 등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 그동안 쉼표 없이 살아오면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는 “간혹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의 의지가 강해 사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주변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년 전 도성환 사장에게 경영을 맡기고 이선으로 물러날 때만 해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사임이 필립 클라크 영국 테스코 회장 겸 최고경영자의 퇴임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본다. 영국 테스코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6% 감소한 5561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해를 보냈다. 일선에서 후퇴한 후 테스코 경영자문역 자격으로 클라크 회장과 가끔씩 재웠던 이 회장으로서의 여간 부담이



아니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녹록지 않은 국내 상황도 사퇴의 이유일 수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 단 1개의 신규점포도 열지 못하는 등 정부 규제에 의해 저성장 국면에 빠졌다.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 결국 모든 직위를 내려놓게 한 직접적 이유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이 회장을 잘 알고 있는 주변에서는 그의 퇴임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

다.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만학의 꿈을 안고 보스턴으로 떠날 때부터 이미 계획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홈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지만 이 회장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다”며 “한국의 창조경영을 학문적으로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회사 경영과 이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상품 중심의 ‘인성 리더십’ 실행에 매진했고, 보스턴대학은 이 회장의 경영이론을 학부 교과과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보스턴에서 기자와 만난 이 회장은 “보스턴대 근처에 숙소를 잡고 매일 새벽 3시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해 왔다. 숙소 밖에 ‘교육보국’이라는 글을 붙여 놓고 ‘K-에듀(edu)’의 장을 여는 불씨를 피우기 위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2014년 제 51회 무역의 날 포상신청 안내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제51주년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증대, 해외시장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수출의 탑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신청기간 : 7월 21일(월) ~ 8월 22일(금)
(상세안내 : www.kita.net 공지사항 참조)

수출의 탑(39종)

• 포상종류

- 백만불대(3종) : 1, 2, 3, 5백만불
- 천만불대(5종) : 1, 2, 3, 5, 7천만불
- 억 불 대(31종) : 1~9억불(9종), 10~90억불(9종), 100~700억불(매50억단위, 13종)

• 신청대상

당해년도 (2013. 7. 1 ~ 2014. 6. 30)에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다만 과거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는 제외)

수출업체 중사자 포상(10종)

• 포상종류

- 훈·포장(6종) -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 표창(4종) -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부장관, 무역협회장

• 신청대상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이상인 기업의 대표자/중임원
- 대표자 :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 중임원 : 위의 입장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대표자가 추천한 자 (사무직, 생산직 각 1인이내)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7. 21(월) ~ 2014. 8. 22(금)

• 신청방법

- ※ 무역업 고유번호 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 (특수유공은 KITAnet ID로 신청 가능)
- ※ 신청 관련 모든 서류가 접수기한 내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함

문의 및 접수처

- **트레이드 콜센터 : 1566-5114**
- **서울 : 포상사무국(02-6000-238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51층 PT룸)
- **지방 : 한국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
부산 (051) 993-3301/6 대구경북 (053) 753-7531/3
광주전남 (062) 943-9400/1 대전충남 (042) 338-1001/4
인천 (032) 420-0011/3 강원 (033) 256-3067/8
충북 (043) 236-1171/3 전북 (063) 214-6991/2
경남 (055) 282-4115/6 경기 (031) 259-7850/3
울산 (052) 287-3060/1 제주 (064) 757-2811/2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화사업실 : 02-799-2683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 02-784-2666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터 | 노트북 | 유선 Mic 2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셋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1, Yeouidaebang-ro 62-gil, Dongjak-gu, Seoul, Korea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중국인이 직접, 요우커 위한 최고급 리조트·헬스타운 짓는다

제주도에 물려드는 ‘차이나 머니’

2개 프로젝트 비용만 2조원대 넘어

3조 규모 복합리조트 ‘신화역사공원’

최첨단 기술 종목 ‘골프빌라’ 건설도

자치도 출범후 中투입 자금 5조 육박

중국의 거대 자본이 제주도에 대형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인 맞춤형 대형 골프 리조트 건설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11일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대형 설계사 5개사가 경쟁한 끝에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건원건축)이 약 6600억원에 달하는 골프 리조트 건설사업의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대략적인 사업내용은 골프장을 포함한 716실 규모의 리조트 건설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지는 오라관광지구 인근이다. 발주처는 용생개발주식회사다.

건원건축 측은 계약체결 관련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수행기간과 앞으로 추진되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리조트 사업의 특성상 설계와 함께 시공사 선정 작업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시행사가 측이 2018년 준공을 계획하는 만큼 비슷한 규모의 리조트 건설사업이 3년가량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시행사가 조만간 시공사 선정작업에 착수할 거라는 추측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원건축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등에 관련한 사항들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계약체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리조트의 명칭은 ‘제주 용생리조트’다. 리조트의 콘셉트는 ‘중국인을 최고의 VIP로 모시는 고급 리조트’다. 테마단지와 현대적이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접목해 최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골프빌라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 리조트는 제주도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건원건축이 발주처와 협의해 최종 확정된 리조트 객실수는 모두 716실이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의에서 건폐율은 당초 10.9%에서 13.9%로 늘었고, 건축면적이 4만9315㎡에서 6만2514.6㎡로 크게 늘어났다.

리조트 객실수가 563실에서 716실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연면적만 당초 계획안에서 2만㎡가량 증가했다.

건원건축의 다른 관계자는 “이 리조트의 기본 콘셉트는 중국인 VIP를 위한 것이다. 이는 발주처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한 사항이다. 하지만 시공사가 선정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계획처럼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대형 개발사업은 대부분 중국 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드림타워,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두 개 프로젝트 비용만 2조원을 넘는다.

중국 란딩그룹과 싱가포르업체의 합자회사인 랍젯 제주개발이 추진하는 3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분마그룹의 분마이호랜드, 홍유개발의 차이나비온드힐도 중국 자본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인 수요를 잡기 위해 제주도에선 실별로 소수가 가능한 분양형 호텔 공급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분양형 호텔 공급은 1443실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3000여실이 공급됐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유치한 중국 자본 투자액만 5조원에 육박한다.

중국 자본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실장은 “이미 제주도의 웬만한 대형 개발사업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된다고 해도 중국인이 저온 시설에서 머물고 간다면 정작 우리나라는 자연 경관만 훼손될 뿐 얻는 것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관·박태현 기자 kwan@

중국 자본 중심의 제주도에 외자사업 진출현황

프로젝트	개발주체	투자규모	도입시설
버자아리조트	버자아그룹	2.5조원	콘도미니엄, 호텔, 카지노, 메디컬센터, 스파 등
헬스케어타운	녹지그룹	1.5조원	콘도미니엄, 호텔, 카지노, 면세점, 쇼핑몰, 의료시설 등
드림타워	녹지그룹	1조553억원	콘도미니엄, 호텔, 카지노, 면세점 등
분마이호랜드	분마그룹	1.3조원	콘도미니엄, 호텔, 마리나, 쇼핑몰 등
신화역사공원	란딩&젯팅	1.8조원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등
차이나비온드힐	홍유개발	7410억원	카지노, 컨벤션센터, 쇼핑몰 등



자금유치부터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은행권 ‘왕서방’ 유치경쟁

중국어 능통한 전문 상담원 전진배치 특화점포 운영·전담데스크 설치 검토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 ‘큰손’이 늘면서 시중은행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은행들은 중국인 특화점포 운영부터 부동산 투자 및 금융자산관리 등 전문적인 서비스까지 앞다퉈 내놓는 등 중국인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이달부터 노형지점을 중국인 고객 특화점포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 전용 상담실에 중국인 직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부동산 대출, 부동산 투자 및 금융자산관리와 관련해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해 눈길을 끈다.

외환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제주지점에 ‘제주 외국인직접투자(FDI)센터’를 만들었다. FDI 센터에서는 외국투자법인 설립에 필요한 입지 선정, 등록업무부터 세금 관련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제주도에 PB센터를 만들어 중국

부동산개발기업 자금 유치와 자산관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인 대면 컨설팅을 위해 신제주지점에 중국인 행원 2명을 배치했다. 우리은행 역시 신제주지점에 중국고객 데스크를 운영하고 중국어가 능통한 직원들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농협은행은 이달 중순 제주 연복로 지점과 제주시지부 간판에 중국어 표기를 병기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한 외국인 마케팅지원 인력 파견과 일요일 영업 및 중국인 특화점포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제주도에 내 외국인 투자 고객 관련 전담데스크 설치 등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제주도에 중국인 고객 유치를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최근 중국계 자본이 제주도로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성장과 위안화 절상 기조가 동반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및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1조7290억원 가운데 99.5%는 중국계 자본이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5억원 이상을 제주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5년 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 자녀에게까지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내년이면 도입 5년을 맞게 된다.

김민지·신태현 기자 kimmj@

1분기 토지 322만㎡… 전체 외국인 매입의 30%

中 큰손, 제주 알짜배기 싹쓸이

필지 규모 미국 이어 두번째지만

금액으론 2311억 외국인 중 최고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규모(누계기준)는 올 1분기 말 현재 322만 948㎡로, 외국인들이 사들인 전체 토지(1106만3512㎡)의 29.1%를 차지했다. 제주도 전체 면적(1849.2㎢)으로는 0.17%를 차지해 1년 전(0.12%)에 비해 상승했다.

필지로는 4168필지로, 1년 전에 비해 2.5배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인이 사들인 373만8035㎡에 이어 두번째 규모지만, 금액상으로는 2311억4500만원으로 투자한 외국인 중 최고다.

미국인이 사들인 땅은 금액으로는 445억5800만원

에 불과하다. 중국인이 보유한 땅 면적은 미국인에 비해 작지만, 대신 알짜배기 땅들만 소유했다는 예기다. 중국인과 미국인에 이어 일본인이 212만2441㎡, 348억 2800만원어치를 사들여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인의 제주도 투자가 급증한 것은 10만㎡, 5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5년 후 영주권을 주기로 한 부동산투자이민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투자한 지 5년이 된 외국인들은 내년부터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국가 소유여서 개인이 임대권만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완전하게 소유는 물론 상속까지 할 수 있고 영주권까지 덤으로 주어지는 한국 땅은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의 제주도 땅 매입 속도가 같은 해 4만9000㎡에서 2011년 143만6000㎡, 2012년 192만9000㎡, 2013년 245만5000㎡ 등으로 폭증세를 기록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다시 급증해 322만1000㎡까지 증가했다. 3년 남짓한 사이 66배나 늘어난 것이다.

강영관 기자 kwan@

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긴 병 앞엔 효자가 있다

100세 시대, 종신보험도 달라져야 합니다
긴 병에도 걱정 없는 (무)교보LTC종신보험

길어진 인생만큼 아픈 날도 늘어나기에

우리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차매·간병보장을 더한 교보LTC종신보험이

평생 든든한 효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은 물론 차매·간병도 보장해드리는 새로운 개념의 종신보험 - (무)교보LTC종신보험 출시
(무)교보LTC종신보험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가족을 걱정하는 당신을 위해 사망은 물론 차매·간병도 보장해드리는 효자 같은 종신보험입니다. ※LTC : Long Term Care 장기간병보험

※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 체결시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확인필 1-1401-14 (2014.1.15) 생명보험협회 제2014-99호(2014.1.21)

KYOBO
교보생명

등 떠밀린 이주열, ‘비둘기 본색’?

14일 금통위… 전방위 압박에 금리 0.25%P 인하할 듯
성장률 3.8% 전망·가계부채 폭등 우려에 동결 주장도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1년 3개월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인하의 제한적 효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전망치, 가계 빚 우려 등으로 동결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뚜렷한 색깔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던 이 총재가 이달 금통위를 계기로 ‘매파’(인플레이션 방어 중시)인지 ‘비둘기파’(성장안정 중시)인지 성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제 및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

으로 점치고 있다. 시장은 이달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8일 연 2.50%로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금리인하 전망의 배경은 우선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침체가 예상보다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41조원+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최경환 경제팀과 한은이 정책공조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또 이 총재는 지난달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회동을 갖고 경제 인식을 공유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번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동결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



이유로 금리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리인하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조차도 금리인하가 경기부양보다는 심리적 효과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8%로 잠재성장률(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성장 최고치) 수준인 것도 금리인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 빚이 1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실질적 효과 없이 빚만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는 최근 주

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정책을 완화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이 금리인하와 맞물리면 가계 빚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달 금통위 결정을 통해 이 총재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의 4년 임기 동안의 통화정책 향배를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통위원 7명은 각각 한 표를 행사하지만 의장인 총재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달 금리가 동결된다면 이 총재는 김성태 전 한은 총재 못지않은 매파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인하에 나선다면 비둘기파로 여겨질 전망이다.

이 밖에 금리인하의 폭을 0.25%포인트보다 작은 수준에서 내리거나 혹은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제3의 길을 모색한다면 이 총재는 온건 매파로 불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진영 기자 mini@

‘규제개혁’ 도표 그려가며 설명한朴대통령

“국민들께 포털에 공개”

수석비서관회의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정보포털 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 수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규제정보 포털과 관련해 “국민이 들어와서 규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찾아볼 수 있게 해야 그 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포털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규제는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들어다봐야 (개혁을) 끌고 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이트에 접속한 사

람이 자신이 원하는 페이지로 쉽게 이동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화이트보드를 준비시켜 직접

도표를 그려 가며 수석비서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사이트에) 들어

오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첫 화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 단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의견 및 처리 현황, 국회 규제관련 법안 처리 상황, 지방자치단체 규제 현황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제정보 포털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이를 오는 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시연할 계획이다.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이달 말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정기획·경제·미래전략·고용노동·홍보수석이 배석했다. 김의중 기자 zerg@

담뱃세 올린 외국… 담배소비↓ 세수↑

정부가 최근 담뱃값(담뱃세 포함)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담뱃세 인상으로 금연과 세수 확대 등을 모두 잡은 성공적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의 ‘담배가격 인상 효과’ 내부 자료에 따르면 우선 멕시코의 경우 2009년 28페소이던 담뱃값이 2011년 38페소로 올랐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멕시코의 담배 판매량은 연간 18억1000만 갑에서 12억7000만 갑으로 30% 줄었고 정부의 담배 관련 세금 수입은 220억 페소에서 300억 페소로 38% 증가했다.

터키도 2005년 이후 담배 증가세(가격 기준 세금) 비율을 58%에서 63%까지 인상하면서 2011년 담배가격이 2005년의

195% 수준까지 뛰었다. 그러자 2005년 1067억 개비에 이르던 담배 소비는 2011년 908억 개비로 15.5% 줄었고, 이 기간 흡연자도 59만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세수는 71억 리라(TL)에서 2.2배인 159억 리라(TL)로 오히려 늘었다.

이 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 미국 역시 꾸준히 담뱃세를 올려 흡연을 하라카 세수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보니 담배 소비 감소나 흡연을 하라카 등의 효과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턱장애’ 환자 대부분이 소아·청소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과 소리를 반복하는 ‘턱 장애’ 환자 대부분이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턱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009년 1만6000명에서 지난해 1만7000명으로 연평균 1.9% 늘었다.

연령별로는 소아·청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10대 45.3%, 10대 미만 37.1%, 전체의 82.4%가 20대 미만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자 수도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8.8% 훨씬

많았다.

턱 장애는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되는 질환으로, 얼굴 찡그리기, 눈 깜박임, 기침, 몸냄새 맡기, 손 흔들기 등 ‘운동틱’과 저속한 언어를 말하거나 말을 따라 하는 ‘음성틱’으로 구분된다.

턱 장애는 유전적 요인, 학습 요인 등으로 나타나며 낮은 연령대에서 발병해 성장하면서 점차 나아진다.

단 30% 정도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증상이 이어진다.

김부미 기자 boomi@



이정현 업은 김무성 대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정현 의원이 순천·국성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이정현 최고위원을 얻어준다고 한 약속을 지킨다면 이 최고위원을 얻어주고 있다. 뉴스시스

원전 안전성 집중 점검

송전탑·외측법 도마에

미리 보는 국정감사

5 산업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원자력발전소 등의 안전성 점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을 달군 원전 비리와 같은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최근 세월호 사건 등의 여파로 노후한 원전, 산업단지와의 같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부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안전대책의 실효성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밀양과 충남 당진 송전탑 공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지난해에 이은 쟁점이다. 특히 야당은 송전탑 건설의 타당성을 따지는 동시에 정부가 지난 6월 행한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행정대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또한 산업부가 밀어붙여 올 초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과가 마땅치 않은 점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외환법 통과 시 2조3000억원의 투자,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고 공언했지만, 산업부는 지난 달까지

산업위 국감 예상 쟁점

산업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성과 미미, 원전, 산업단지공단 등의 안전성, FTA수입가 인하효과 미미, 공기업 방만경영

중기청

중소기업법위 기준개편 후속조치

강원랜드

기부금 예산집행 적정성

도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올 4월로 FTA 체결 10주년을 맞이했지만 FTA 수입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역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칠레, 미국, EU EMD 47개국과의 FTA를 체결했지만 칠레산 포도, 미국산 오렌지와 쇠고기, EU산 돼지고기 가격은 관세인하에도 FTA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FTA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인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또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외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해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토록 새로운 범위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중소기업 지원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 필요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기자 bomnal@

세월호특별법 13일 처리 불투명

세월호가족 대책위 반발에 새정치 ‘재합의’ 방침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

여야가 13일 처리에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던 세월호특별법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또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합의 이후 특별법조사 추진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데 대한 당 내부와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반발이 거세져자 ‘재합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이를 위해 11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 추천권의 주체를 바꾸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최장 추가로 3개월 연장

하고,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 번 더 특검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전 안전행정부 장관) 인천시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새정치연합과 ‘불가’하다는 새누리당이 맞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법상 청문회 출석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첫날인 18일 증인을 부르기 위해선 늦어도 11일 종료로 증인 명단을 확정해야 정상적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세월호 논의가 깊어질 경우 가족이나 늦어진 민생법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관공진 흥남 등 경제활성화법을 포함해 총 7646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의중 기자 zerg@

식약처, 일본산 에볼라 치료제 수입 검토

美 사용 ‘지맵’보다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볼라 바이러스 국내 유행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일본에서 임상시험 중인 에볼라 치료제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식약처는 “국내에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가장 먼저 에볼라 치료제로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후지필름의 에볼라 치료제의 신속 수입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후지필름의 에볼라 치료제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맵’보다 안전하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다만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입계획은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에볼라 감염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 중이고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예비결과도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한편 보건당국은 전국 모든 검역소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우리나라 공항·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2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에볼라 출혈열 감염 태세 점검 긴급 국립검역소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장들과 에볼라 바이러스 국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안일한 자세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는 만큼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검역소장들에게 당부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금리인하보다 서비스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먼저 풀어야”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먼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 법치버린 기적 새로 쓰자 -2기 경제팀의 과제

1부 우려되는 일본식 불황 2부 이것이 문제다 3부 이렇게 풀자

- ① 최중찬 국가경쟁전략연구원장
- ② 최은열 서강대 교수
- ③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 보나.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이 본질적 문제다. 거의 대부분 업종 특히 택시, 식당 등 내수서비스업이 총체적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취직이 안 되니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그러니 수요가 또 줄어 영세 자영업은 중심으로 한 악순환이 이어진다. 김밥가게만이 아니라 의사, 회계사, 변호사까지 공급과잉 아닌 분야가 없어 전문직들 보수도 날로 떨어진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공급과잉 문제를 안고 있어 나라끼리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실상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제경쟁력이 있어, 국내에서 파는 건 10%도 안 되고 90%를 수출한다. 그런데 내수서비스업은 국제경쟁력이 없다. 해외에서 수요를 확보해보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내수에만 의존해 먹고 살려는 바람에 공급과잉의 부담을 다 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집에서 부모의 장사를 돕는 가사노동 종사자들을 합쳐 비임금 근로자가 2000년대 초반 800만명에 달했다가 요샌 700만명 정도로 줄었는데 최근 2,3년 사이 다시 늘는 조짐이다. 잠재적 실업상태나 다름없는 이들이 전체 근로자의 28%다. 선진국은 10-15%인데.”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정부는 결핍하면 환율이 이렇게 절상되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원·달러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면 온 국민이 식량·에너지 수입에 10%씩 더 내는 것이다. 그 대신 현대자동차 등은 같은 1달러를 벌어도 10% 더 벌고, 온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수출대기업 주머니에 넣어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내수진작이 안 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돈 더 번다고 임금을 더 주는 게 아니잖나. 우리는 종전과 똑같은 양을 소비하는데 돈이 10% 더 드니까 소비도 10% 줄일 수밖에 없어 내수 부족이 심화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데, 이것은 주주의 돈이고 주주나 경영진이 알아서 처분할 것이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성질의 돈이 아니다. 세금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유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투자하라고 자꾸 말하지만, 지금 투자하겠다는 기업 중에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 주어야 투자할 의욕이 생길 것이다. 돈벌이 거리가 보이면 기업은 말려도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린다. 예로 작년에 중국관광객을 430만명 유치했는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평생 우리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금리와 환율이란 거시정책 수단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규제개혁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최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혁파가 먼저”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3월 경제토론회에서 나온 규제개혁 과제들도 어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사고를 제조업 위주로 하고 있는 건 병폐”라면서 “제조업에서 지난 50년 동안 세계가 놀란 성공을 거둔 전략과 전술, 정책, 모든 수법을 서비스업에도 적용하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를 한 번씩만이라도 와 보려면 300년이 넘게 걸린다. 최소한 1년에 3000만명씩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의 인프라로는 안 된다. 관광시설에 식당, 호텔 등 할 게 많은데 호텔도 못 짓게 하고, 케이ابل카, 카지노도 안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데도 다른 나라에 투자하라고 하는 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로 돈이 흘러가게 해서 내수진작해 경제 풀겠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선순위는 규제혁파다. 거시정책 수단은 시간 벌기이고 근본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혁파가 우선이다.”

△금리인하 조치는 임박한 것 같고, 규제개혁은 세월호 사고 이후 조금 주춤한 상황이다.

“금리를 낮춘다고 소비가 늘어날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은행에서 이자 타서 생활하는 은퇴 노인들은 늘고 있는데 그들의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옛날엔 당연히 금리 낮추면 투자와 소비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 소비수요 증가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양적 소비증가는 거의 한계에 접근해 질을 높이지 않으면 소

과거 금리 낮추면 투자·소비 늘었지만 지금은 제한적 소비증가에 역효과도

공급과잉·수요부족으로 부실 악순환 내수에만 의존하다 보니 부담만 커져 제조업 ‘성공DNA’ 서비스업 적용해야

비수요를 더 늘리기 어렵다. 소득수준이 두 배나 되고 밥을 하루 여섯 끼 먹는 것은 아니지 않나. 내수진작을 위해 부총리가 호소한다고 밥 한 끼 더 먹을 수는 없다. 모든 사고를 제조업 위주로 하고 있는 건 병폐다. 제조업에서 지난 50년 동안 세계가 놀란 성공을 거둔 전략과 전술, 정책, 모든 수법을 서비스업에도 적용해야 한다. 서비스업에서 규제를 풀어줘

야 한다. 송도를 금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소위 좌파 대통령이 2002년에 선언했는데 12년 지나도록 진전 없는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행 총재와 잘 얘기해서 금리 내리고, 어떻게든 국회 안가도 되는 기금 털어 투자하게 하는 방법은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금리 내리고 환율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론 해결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식사도 거르면서 끝장토론을 했을 당시 나왔던 규제개혁 과제들이 얼마나 실천에 옮겨졌나? 어서 풀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수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푼다는데, 부작용은 없다고 보나.

“재정적자, 국가부채가 누적돼 일본처럼 되는 건 당장 우리와는 거리가 먼, 먼 훗날 얘기니 일단 (최 부총리처럼) 해볼 수도 있다. 우린 아직 역량이 있으니, 하지만 그 이전에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세금은 인위적으로 더 거두려고 하기는 취지 잘 되고 장사 잘 되게 해서 세금이 저절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정공법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워 기대가 많겠다.

“정치 경력이 단단하고, 현오석 전 부총리보다 동원능력도 낫다고들 하니 기대도 하지만, 이를 최 부총리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언론, 시민사회가 가하는 규제도 대단하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이런 질곡을 제거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과 언론 등이 모두 나서 도와주어야 한다.” 김미영 기자 bomnal@

청약일정

특별공급

8월 12일(화)

1·2순위

8월 13일(수)

HO BAN 호반건설

위례 신도시

송파IC

트랜зит폴(예정)

4BAY 혁신평면 (일부타입 제외)

트램(예정)

위례-신사선(예정)

성남GC

남한산성

학교용지(예정)

근린공원(예정)

요즘 No.1 호반&위례

상위 1% 건설사와 청약 1순위 신도시와의 만남

대한주택보증 AAA 최고등급의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의 분양완판 행진을 이어갑니다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A2-8B1)

위례신도시 입성! 호반베르디움이 기회입니다!

총 1,137세대 / 전용 98㎡

시행 푸른위례프로젝트(주) 시공 호반건설 TAEYOUNG 태영건설

문의 1688-1131

박병원 회장은

盧정부 때 분양가 규제 반대 ‘대립각’

전국은행연합회 박병원(62) 회장은 경제관료 시절부터 아이디어와 실력, 소신을 갖춘 수재란 평가를 받아왔다.

박 회장은 1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정책 및 예산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국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보,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차관 시절 그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했고, 아파트 분양가 규제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당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말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이명박 정부에선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두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7개월 만에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권설팅 용역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진사퇴했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

분을 받았다. 불운하게 공직을 떠난 그는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고문, KT 사외이사, 미래에셋 자산운용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2011년 11월부터는 은행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도 겸하며 서비스업 규제완화 및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그는 비상한 머리에 왕성한 지식욕으로도 유명하다.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박 회장은 서울대 법학석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 석사,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등 석사학위가 3개나 된다. 그가 읽을 줄 아는 외국어는 영어·일어·불어·독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 등 8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조예가 깊어 지금까지 찍은 수만 점의 야생화 사진 중 대표작을 골라 올해 4월 두 번째 전시회를 열었고 수익으로는 북한 어린이를 도왔다.

김미영 기자 bomnal@



호반베르디움 주요 분양단지

위례신도시

오픈중

전용 98㎡

1,137세대

1688-1131

천안불당 3.5차

9월 분양(예정)

3차 1,375세대

5차 705세대

전용 84㎡~97㎡

1899-8864

광명역세권

10월 분양(예정)

전용 59㎡~98㎡

2,041세대

1588-9798

분양예정 단지

- 부산 명지 (B6) 694세대
- 오산 세교 (D-1) 855세대
- 동탄2신도시 (A41, A49) 2,441세대
- 시흥 목감 (B4, B7) 1,340세대
- 수원 호매실 (B5, B9) 1,667세대
- 의정부 민락 (B14, B15) 1,567세대
- 고양 원흥 (A5) 966세대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B8-1, B3) 1,963세대
- 고양 합동 (B2, B3, B4) 2,189세대



*본 이미지의 하자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0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본 홍보물의 이미지, 일러스트, 사진,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또는 표기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개발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분양일정은 현재의 계획 및 여건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피아 부패사슬’ 미래부·서울시 공무원 연루

협회 차려 나랏돈 챙기고 뇌물카드 ‘핑핑’

IT업체 정부출연금 12억 횡령… NIA 연구원 등 7명 구속 미래부 발주사업 하청 대가로 1천만원 임금된 체크카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공무원이 IT업체 정부출연금 비리와 관련, 뒤통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스마트네트워킹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비리에 연루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각 진흥원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 7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NIA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수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금품수수과 횡령 사실을 숨길 수 있는 병행방법을 모색했다.

이들은 IT 관련 협회를 세워놓고서는 업체들로부터 협회비를 모금하는 형식으로 5년 가까이 하청업체들로부터 공공연히 뇌물을 받았다.

특히 연구원 강씨는 초등학교 동창생 명의로 IT업체 F사를 차린 뒤 NIA 사업을 하청받은 업체들이 F사에 재하도급을 맡

기도록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정부 돈을 빼돌렸으며,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려고 세공까지 냈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혹에 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무관은 2015년 미래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NIA가 맡게 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원을 달라며 강 연구원에게 요구해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하는데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약 10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혜은 기자 euna@

돈세탁 등 ‘의심 금융거래’ 1년새 자료요청 7배 급증

검찰·국세청 등 7개 법집행기관 FIU에 1만1000여건 정보 요청 과세 사각지대 고강도조사와 예고

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확보한 돈세탁·탈세 등 ‘의심 금융거래’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고액·의심거래 정보 건수는 1만1000여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00여건)과 비교할 때 약 7배 수준이다.

또한 이는 지난해 한 해 전체 요청건수(5700여건)의 약 2배이며, 2012년 전체 요청건수(1800여건)보다 6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사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지하경제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STR)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7개 기관 중 국세청의 요청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상반기에만 1만건이 넘는 정보를 FIU에 요청해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89건에 비해 10배가 넘는 규모다.

관세청 역시 작년 상반기에는 16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114건의 정보를 요청해 받았다.

반면 검찰의 요청건수는 지난해 313건에서 354건으로 10% 이상 늘었고, 경찰은 작년(170건)과 같은 수준인 171건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기관과 비교할 때 국세청과 관세청의 요청건수가 급증한 것은 FIU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1월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 축소 등 세수 관리와 역외탈세 등에 대한 세부조사,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올해 3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1만여건의 정보를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이 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본격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급증하면서 이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국세청이나 검찰 등이 제공받은 정보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의 정보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FIU로부터 받은 정보를 잘못 운용하거나 대외적으로 누설하면 국세청 직원이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내부적으로 감독도 철저히 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노랑진 냉동창고 발파 해체

서울 동작구 노랑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수산시장 내 5층 높이.3758평 규모의 수협 냉동창고 건물이 10일 오후 ‘발파 해체 공법’으로 철거되고 있다. 철거된 냉동 창고 부지에는 현대화된 냉동 창고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철피아’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국회 통과 여부 주목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정부는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근 부장검사)가 청구한 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

무총리실을 거쳐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대검찰청·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법원은 국회가 처리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라 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조 의원을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유혜은 기자 euna@

원주 수련원 천장 붕괴 14명 부상

경찰 부실공사·안전관리 조사

상주 수련원 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원주 소재 한 리조트에서 천장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공업체의 부실 설계와 시공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55분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동서울레스피아 리조트 연수원 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천장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하계 수영회를 와 아홉 예매를 보던 서울 모 지역 교회연합회 회원 370여명 중 권모(57·여)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또 전모(57·여) 등 13명이 찰

과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들은 원주세브란스기병병원과 성지병원, 원주의료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강당 뒤편에서 목재로 된 직사각형 모양의 대형 천장 물집 마감재(가로 13m, 세로 6m)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 목격자 A씨는 “모두 앉아서 공지사황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하는 소리가 나더니 천장에서 뭔가가 확 떨어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수원 측은 최근 강당 내부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부실 공사 여부와 안전 관리 소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폭염 물러간 여름 (서울 최고기온 날씨 기준)								※ 출처: 기상청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30℃ 맑고 구름	 31℃ 맑고 구름	 31℃ 맑고 구름	 30℃ 맑고 구름	 29℃ 비	 28℃ 비	 29℃ 흐리고 소나기	 29℃ 맑고 구름	

올 여름 폭염 끝… 작년보다 일주일 일러

올 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1주일가량 일찍 물러났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무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이번 주 내내 30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기온이 28~29도에 머물 전망이다.

서울의 최고기온은 지난 4일 29.6도를 기록, 이달 들어 처음으로 30도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절기상 입추인 7일(27.1도)까지 나흘 연속 30도를 넘기지 못했다. 8~9일엔 30도를 넘었지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전만큼의 무더위는 찾아

오지 않았다.

이는 ‘너구리’와 ‘나크리’ 등 두 차례의 태풍으로 여름 더위를 좌우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밀려 우리나라에 크게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8월 초·중순 절정에 달한 뒤 중순을 기점으로 약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33도 이상의 폭염이 다시 찾아오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는 14일은 충청 이남에서, 15~17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환불기한 줄이고 최저가 허위광고 소비자 울린 유아쇼핑몰에 과태료

남양아이몰 등 9곳 7천만원 적립금 제공 사실도 안알려

기저귀와 유모차, 분유 같은 유아용품의 환불 기한 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망한 쇼핑몰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환불,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엔 적발된 9개 사업자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뽀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아세일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9개 사업자는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

일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다.

특히 이 가운데 베이비타운은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주문했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전자상거래법(7월 이내)을 어겼다.

또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상품을 자신들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였다.

이밖에 뽀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들이 상품 이용 후기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경우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주고 있는데도 그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감시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추석 제수용 농식품 등 원산지 집중단속

농관원 4천명 투입 내달 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9월5일까지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등 모두 4100명을 투입,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농관원은 또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을 국산으로 부정유통하는 사례와 묵은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단속을 할 방침이다.

앞서 농관원은 7월말 현재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029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38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삼성화재 대출업무 보조직원 모집

여성직장 재탐색!

삼성화재재해보험 강남용자지점이 대출업무 보조 직원을 모집한다.

직무내용은 담보대출 신용정보 조회 및 열람, 대출서류 입력, 우체국 서류접수, 일반사무 보조 업무 등이다.

고졸 이상 지원가능하며 경력, 전공, 외국어능력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문서 및 스프레드시트 작성이 가능한 컴퓨터 활용능력이 요구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모집요강	
모집직종	은행사무원
직무내용	대출서류 입력, 신용정보 조회 등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0개월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고졸이상
우대사항	청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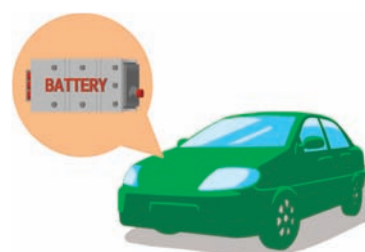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근무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문의 02-3468-9341 유혜은 기자 euna@



1억년전, 공룡들이 풀 뜯을 때
석유가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개발하죠
15개국 22광구에서



미래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배터리**로
자동차를 달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석탄도 이산화탄소도**
그린에너지로 만들죠



과거부터 현재,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명량’ 흥행돌풍에 은행도 함박웃음

기업·산업銀, 각각 펀드 조성 재무적 투자자 참여

우리·하나銀, 관련 금융상품 출시 조기 한도 소진

은행들이 영화 ‘명량’ 흥행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기업·산업은행이 각각 펀드를 조성해 명량의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한 가운데 우리·하나은행은 최근 출시한 명량 관련 상품이 잇달아 조기 한도 소진을 달성하면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기업은행은 최근 명량에 투자하면서 흥행 보증수표로 떠올랐다. 앞서 기업은행은 영화 설국열차, 수상한 그녀, 관상, 신의 한수를 비롯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뮤지컬 레미제라블, 애니메이션 뽀로로 등 이른바 ‘대박 작품’을 잇달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수익률은 3.6%다. 작품 가운데 관상(130%), 연가시(75%), 베를린(29%) 등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최근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의 수익배분이 이뤄지면 기업은행의 수익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향후 3년간 약 7500억원 규모의 대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영화 제작·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총 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이 가운데 300억원을 명량에 투자했다.

은행별 ‘명량’ 흥행 효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800억 규모 펀드 조성, 337억원 투자	CJ엔터테인먼트와 6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300억원 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우리나라사랑 명량 정기예금 출시 6시간30분 만에 1000억 모두 소진	하나 Movie 정기예금(명량) 출시 2주 만에 3000억원 한도 모두 소진

금융권 관계자는 “영화의 경우 대형 투자·배급사가 자리 잡아 투자 리스크가 적고 산업의 파이프 커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흥행에 따른 수익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어 은행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명량 관련 금융상품도 명달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달 29일 1000억원 한도로 출시한 ‘우리나

라사랑 명량 정기예금’은 6시간30분 만에 모두 판매됐다. 가입 기간을 오는 15일까지로 정했지만 첫 날 1000억원을 다 채우면서 판매가 종료된 것이다.

관계에 따라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하나은행의 ‘하나 Movie 정기예금(명량)’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판매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일로 3000억원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김민지 기자 kimmj@

“조기통합 외환이 주도하자”

김한조 외환은행장 지점장회의서 “고객 우선” 노조·직원 설득 나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환은행이 주도적으로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2014 하반기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전국 500여명의 지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조기 통합을 반대하는 외환노조와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김 행장이 마련한 자리다.

김 행장은 영화 ‘명량’의 대사를 인용하며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忠)을 쫓아야 하고 충(忠)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란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의 장기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중심주의가 은행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모든 은행조직들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상생의



김한조 행장이 500여 지점장들에게 영업력 강화와 고객기반 확대, 하나은행과 조기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

기업문화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임직원들과 전국 지점장들은 영업력 강화, 고객기반 확대, 시너지 강화 등 당면한 실천과제를 수행해 ‘한국 최고의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행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영업본부 소통관서트 중소·중견기업 고객초청 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대내외적인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현대카드, 구리함금 신소재

‘코팔’ 플레이트 카드 출시

현대카드가 프리미엄 카드의 새로운 플레이트로 신소재인 ‘코팔’ 플레이트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코팔은 구리 함금 신소재로, 강도가 높고 무게감이 있으며 가공하기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코팔 플레이트는 블랙, 퍼플 및 레드카드 본인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블랙카드와 퍼플카드의 신규 회원은 무료로, 퍼플카드 재발급 회원과 레드카드 신규 및 재발급 회원은 8만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현대카드는 지난 2007년 플라스틱 카드에 금속 문양을 삽입한 ‘메탈 임플란트’ 카드를 출시했으며 뒤이어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최첨단 소재인 ‘티타늄’과 ‘리퀴드메탈’ 플레이트를 선보인 바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카드 플레이트에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왔다”며 “코팔 플레이트는 인류가 사용한 화폐 소재의 시조인 구리를 현대카드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해 신용카드가 화폐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NH농협銀 추석연휴 앞두고

중企에 3조 유동성자금 지원

NH농협은행은 10일 추석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동성 자금 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추석명절 전후 45일(8월 11일~9월 23일)이며, 신규자금(2조원) 지원 및 이 기간 중 만기되는 대출에 대한 기한연장(1조원)도 포함된다. 특히 추석명절 특별우대금리 0.3%포인트를 포함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車보험 소비자만족도 1위… 온라인 ‘하이카’ 오프 ‘동부’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보험 7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중에서는 하이카다이렉트가, 오프라인은 동부화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전체 자동차보험 상위 5개사, 온라인 상위 2개사를 선정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자가운전자 1080명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고객지향성, 대응성, 서비스 체험, 가격 등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온라인 보험사로는 하이카다이렉트와 AXA다이렉트 등 2개, 오프라인은 현대해상 1개였으며 온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는 △삼성 △동부 △LIG △메리츠 등 4곳이 조사대상으로 꼽혔다.

온라인보험 중에는 하이카다이렉트의 만족도가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화재(3.61점), 동부화재(3.60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은 동부화재가 3.64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현대해상(3.63점), 삼성화

재(3.61점)가 뒤를 이었다.

가입 채널별로는 온라인 보험이 종합만족도 3.53점으로 오프라인 보험(3.56점)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온라인 보험이 가격면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전문성·고객지향성 등의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오프라인 보험에 뒤졌기 때문이다.

한편 긴급출동서비스는 현대해상이 3.92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삼성화재(3.91점), 동부화재(3.85점) 순이었다.

강구귀 기자 kkk@

3곳 중 2곳 수수료 부담에 외면

국내 대학교 3곳중 2곳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삼성, 신한, NH농협,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SK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총 138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대학 423곳 가운데 32.6%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등록금으로 카드를 낼 수 있는 대학은 삼성 47곳, 신한 35곳, NH농협 34곳, KB국민 26곳, 현대 20곳, 롯데·우리 15곳, 하나SK 7곳이다. 또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대학이 대부분 지방대에 쏠린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서울대가 3개 카드사를 통한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반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은 1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실정이다. 고려대와 한양대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아 이에 신용

각 카드사별 등록금 결제 가능한 대학교 현황

카드사	대학교
삼성	47곳
신한	35곳
NH농협	34곳
KB국민	26곳
현대	20곳
롯데·우리	15곳
하나SK	7곳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카드 결제에 대해 특히 비협조적인 셈이다. 이처럼 대학들이 등록금 결제를 거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카드사에 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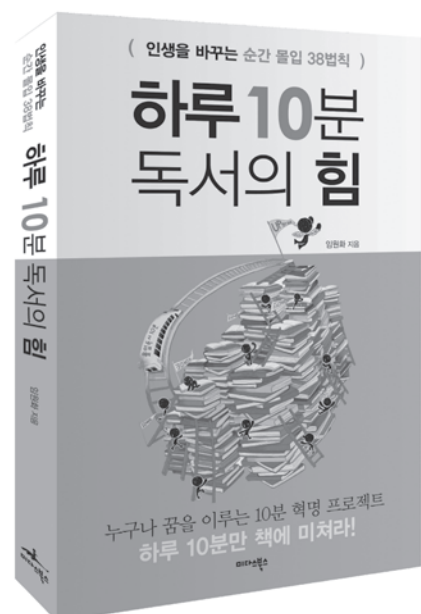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일반적으로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2.5% 안팎인데,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으로 부터 원가 이상의 적격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대학들도 있는 탓에 일부 카드는 1%중후 반대의 수수료를 적용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나 일부 대학들은 금융당국에게 등록금을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적격비용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아 기자 kakim@

하루 10분만 책에 미쳐라!

평범한 당신을 성공의 프로로 만드는 10분의 마법



당신의 멈춰 있는 삶을 잠금 해제하라!

당신은 하루 24시간 중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10분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는가? 하루 10분은 1년에 약 7.6일에 해당한다.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다. 안철수, 이진희, 빌 게이츠, 하워드 슐츠, 워런 버핏, 스티븐 스피버그 등 이 시대의 뛰어난 리더들은 이 위대한 10분의 힘을 알고 실천한 인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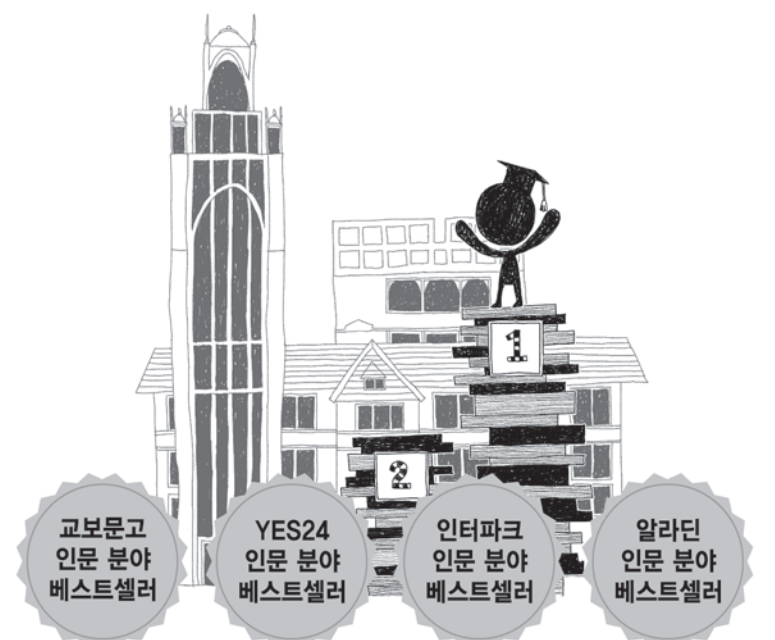
인생 역전의 비밀, 이제 순간 몰입 38법칙에서 찾아라!

(인생을 바꾸는 순간 몰입 38법칙)

하루 10분 독서의 힘

임원화 지음 | 336쪽 | 13,800원

생산적인 자기경영으로 성공의 지름길을 안내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필독서!



midasbooks@hanmail.net www.midasbooks.net

중국 간 생활가전 中企 ‘짝통과의 전쟁’

쿠쿠전자·리훙쿠첸·휴몹, 해외시장 성장세 속
디자인·색상 베낀 중국산 제품 등장에 골머리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에 강력 대응 쉽지 않아

국내 생활가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중국에서 ‘일희일비(一喜一悲)’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 생활가전제품의 대표 해외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시에, 국내 제품들을 모방한 중국산 ‘짝통제품’들도 함께 판을 치고 있어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 리훙쿠첸, 휴몹 등 국내 생활가전 중소·중견기업들은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유통망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전기밥솥 시장 1위 업체인 쿠쿠전자는 최근 중국 청도에 쿠쿠 브랜드샵 10호점을 오픈했다. 오는 2016년까지 총 20호점의 브랜드샵을 오픈한다는 계획으로,

쿠쿠전자는 중국 전 지역의 판매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리훙쿠첸도 최근 중국시장 유통망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최고 가전업체인 메이디그룹, 국영 면세점 CDFG 입점, 현지 3대 홈쇼핑 입점 등 연이어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한국 전기밥솥제품이 정식으로 유통되고 한류 바람도 더해지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식이 쌀인 같은 문화권인만큼, 중국시장의 잠재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벌써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다. 주스기제조업체 휴몹은 지난해 처음

으로 국내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 휴몹은 지난해부터 상하이, 베이징 등 주요 쇼핑가와 백화점에 입점을 늘리면서 중국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렸다. 휴몹 관계자는 “간장을 중시하는 중국 상위층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이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대표 해외시장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한국제품을 모방하는 ‘짝통제품’도 함께 늘고 있어 업체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휴몹은 최근 중국시장에 자사 주스기를 따라한 짝통제품을 발견했다. 디자인과 색상은 그대로 따라했지만, 핵심부품의 성능까지는 아직 구현하지 못한 상태다. 또 국내 전기밥솥제품 일부의 디자인을 모방한 중국산 제품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련 업체들 역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쉽지 않다. 이제 막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기업과 분쟁을 일으키는 한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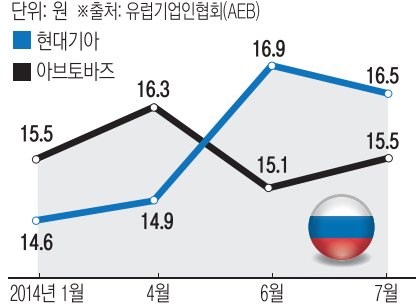
업’이란 인식이 박혀 기업 이미지 하락이 우려돼서다.

중소 가전업체 A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큰 가전박람회를 갔더니, 일부 중국업체는 바이어들에게 대놓고 우리 제품과 디자인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더라”면서도 “하지만 최대한 잡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향후 사업에 도움이 될 거 같아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짝통제품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첫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화웨이처럼 향후 중국 가전업체들이 단순한 디자인 모방이 아닌, 기술력까지 갖추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직접적인 대응보다 코र्ट라 등 정부 기관들을 통한 우회적인 대응법을 고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현대기아차 러시아 점유율 추이



현대·기아차 러시아서 씹씹

두달 연속 점유율 1위

현대기아자동차가 러시아에서 두 달 연속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11일 현대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러시아에서 지난달 3만대를 팔아 시장점유율 16.5%를 차지하며, 6월에 이어 러시아 현지업체 아브토바즈(15.5%)를 앞질렀다.

업체별 점유율은 폭스바겐(11.1%)이 3위였고 르노(8.4%), 토요타(8.2%), GM(7.4%) 등의 순이었다.

7월 러시아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22.9% 감소한 18만1000대에 그쳤다. 올해 1~7월 누적 판매량도 141만 1000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세차례나 올린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브토바즈의 7월 판매량은 2만8000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4% 급감했다. 르노(15.5%), 닛산(22.4%), 폭스바겐(19.7%), GM(39.2%)등도 두자리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권태성 기자 iskwon@



5년 만에 새모습으로 기아차 ‘올 뉴 쏘렌토’

기아자동차는 이달 28일 출시 예정인 쏘렌토 후속 모델의 차명을 ‘올 뉴 쏘렌토’로 확정하고, 12일부터 전국 기아차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올 뉴 쏘렌토’는 2009년 4월 출시된 2세대 ‘쏘렌토’ 이후 기아차가 약 5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3세대 모델이다.

사진제공 기아자동차

신동빈 회장, 여름휴가 왜 못가나 했더니...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 차질
주력계열사 부진…과제 산적
대외협력단 신설 ‘소통 강화’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사용 여부와 주력 계열사 실적 부진 등으로 여름휴가 일정도 잡지 못한채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예전 같으면 8월 초에 휴식을 취했으나, 올해는 쟁거야 할 과제가 많아 휴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가장 큰 고민은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짓는 제2롯데월드다. 75층까지 올라간 월드타워 옆에 ‘롯데월드몰’로 불리는 9~11층 별개 건물인 3개 동은 지난달 초 공사를 마치고 개장 승인을 두달째 기



외협력단을 신설하고, 소진세 롯데슈퍼·코리아세븐 총괄사장을 신설된 정채본 부대외협력단장에 겸임 발령했다. 대외협력단은 홍보, 사회적 책임(CSR), 브랜드 경영은 물론, 롯데 주요 계열사의 대외업무를 지원한다. 이는 제2롯데월드 개장 등 외부 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소 사장은 최경환 부총리(15회)의 대구

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변 석촌호수 물이 줄어들고 인근 도로에 땅이 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정책

본부 내에 대

고등학교 6년 선배다.

다만, 롯데그룹 관계자는 “소진세 사장의 대외업무 총괄 업무는 그동안 홍보와 CSR, 브랜드 경영 등을 담당하는 것에서 계열사의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역할로 연이 넓혀진 것”이라며 “그동안의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업무추진력 등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 회장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기 불황으로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실적도 부진하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의 312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6%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6조 9214억원으로 0.8%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 백화점의 경우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보다 9.7%, 매출액은 1.5% 줄었다. 롯데마트의 감소폭은 더 커 영업이익은 79.6%, 매출액은 9.6% 감소했다.

이선에 기자 isa@

카카오 이어 밴드도 ‘소액송금 서비스’ 도입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SNS ‘밴드’에 소액송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밴드를 운영하는 네이버의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전자지급결제 기업 옐로페이와 손잡고 밴드에 소액 송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소액 송금 서비스에 진출하기로 함에 따라 모바일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정보기술(IT)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밴드에는 이미 회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계산할 수 있는 ‘N빵 계산기’ 메뉴가 있다. 여기에 계산기로 산출된 금액을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붙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캠프모바일은 인터넷과 관계사인 전자지급결제 전문기업 옐로페이와 손잡고 연동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네이버가 송금 서비스를 준비함에 따라 모바일 금융시장에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와 맞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카카오는 15개 시중은행, 9개 카드사와 손잡고 각각 소액 송금과 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 카카오’와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를 9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이통·제조사 휴대폰 보조금 10월부터 분리 공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알 수 있게 된다. 또 보조금 상환선도 기존 27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확대된다. 10월 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통법의 세부 고시가 확정됐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제 합리화 △보조금 분리 공시 △분리요금제 시행 등이 골자다.

방통통신위원회는 8일 개최된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이번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에게 지급되

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더해 구성되는데, 분리공시란 이를 각각 구분해 알려주는 것이다. 그동안 보조금 분리 공시제도를 두고 이통사와 제조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정이 미뤄져왔다.

이와 함께 휴대폰 보조금 상환선을 기존 27만원 정액제에서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리점, 판매점은 이통사 공식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ETOPS 무자격 조종사 사이판 노선 배정

아시아나항공 운항관리 ‘허술’

조종사 연락받고서 뒤늦게 수정
2년 전에도 비슷한 실수로 물의

아시아나항공이 ETOPS(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무자격 조종사를 사이판 노선에 배정했다가 철회하는 등, 안전운항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11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게시판에 따르면 A320을 조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종사가 ETOPS 자격이 없음에도 8월 세 차례나 사이판 노선에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ETOPS란 1985년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만든 안전인증이다. 두 개의 엔진을 보유한 쌍발 항공기가 운항 중 하나의 엔진이 꺼지는 경우, 회항 또는 대체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하기까지 운항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다.

엔진이 고장 났을 때 75분, 120분, 180분, 207분 거리 내에 비상착륙 할 수 있는 비행

장이 있어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항공기는 인근 공항과의 거리가 60분을 넘는 항로를 운항하면 안 된다. 또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조종사 역시 ETOPS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ETOPS 자격과 관련해 잘못된 스케줄이 조종사에 배정됐고, 이를 인식한 조종사가 스케줄탑에 연락하고서야 수정을 거쳤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2년 1월 ETOPS 인증을 받지 않은 A321 항공기로 김해-사이판 노선을 총 8회 운항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3개월 지난 같은 해 4월에 서야 국토해양부에 자진 신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 스케줄을 자동으로 짜는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스케줄이 잘못 배정됐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된 스케줄이 다시 나왔다”며 “국토부와 내부 운항 규정에 맞춰 스케줄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케이콘, 글로벌 한류 플랫폼”

CJ E&M, 미국서 한류행사…관람객 4만여명 크게 늘어
강석희 대표 “한류 수출·창조경제 이끌 교두보 역할할 것”

종합 콘텐츠 기업 CJ E&M은 북미 최대 케이컬처 페스티벌인 ‘케이콘(KCON) 2014’을 9~10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했다. 2012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처음 열린 이 행사는 회를 거듭할수록 매년 규모를 더해가고 있다. 콘서트와 함께 열리는 중소기업 콘벤션 참여기업도 첫 회 58곳에서 올해는 114곳으로 늘었다. 또 같은 기간 관람객도 1만명에서 4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행사에 참석한 강석희 CJ E&M 대표는 “KCON은 단순히 한국문화를 글로벌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한국 브랜드라는 국가이미지를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잡고, 이미지 메이킹하는 문화전도사”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한국브랜드의 위상과 함께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전문학자에 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 CJ E&M측은 이번 행사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호감형성을 물론 관광유발 효과 등으로 2793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KCON은 드라마와 영화 등 문화 콘텐츠와 IT 패션 뷰티, 첨단산업부터 제조업까지 ‘한류의 모든 것’을 테마로 컨벤션과 콘서트를 결합할 최초의 K-Culture 축제로 손꼽힌다. 또 관람



객들의 눈길을 끄는 콘서트를 매개로, 한류 콘텐츠와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컨벤션을 진행해 문화와 산업의 만남을 직접히 조화해 냈다.

메인 행사인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는 지드래곤, 아이유, 빅스, 틴탑, B1A4가 공연을 펼쳤다. 강석희 대표는 “이승기도 등장해 관객들을 환호하게 했다.”

강 대표는 “KCON 2014가 단순한 한류 이벤트를 넘어 한류 문화와 파생 산업을 글로벌 무대에 소개하는 통합 플랫폼이 되고 있다”면서 “한류 콘텐츠의 수출과 글로벌 창조경제를 이끌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119@

팬택 ‘운명의 한 주’ 이번주 중 법정관리 신청 “관리개시 6개월 내 마무리”

팬택이 이번 주 내로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다.

11일 팬택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이달 1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과 받은 지 2주도 채 안된 시점이다.

팬택은 이날 만기가 도래한 협력사 매출 채권 200억여원을 갚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미 팬택은 지난달에 550여개의 협력사에 지급할 대금 500억여원을 연체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약 1800명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했다.

팬택은 긴급 자금 마련 대안책으로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단말기 13만대(약 900억원어치)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통 3사는 끝

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팬택은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법정관리 개시를 6개월 내에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기업 실사가 진행되고 해당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 회생계획안을 갖고 채권단에서 75% 이상이 동의하면 법정관리 인가를 받는다. 이 절차들이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팬택은 그 시간을 단축해 내년 1월까지 절차를 마칠겠다는 것이다. 팬택은 지난 6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팬택의 계속기업가치는 3824억원으로, 청산 가치 1895억원보다 큰 것으로 분석했다.

팬택 관계자는 “정확한 법정관리 신청 시기는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6개월 이내 법정관리가 개시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해외건설 수주 700억달러 달성 ‘난기류’

美 이라크반군 공습… 20여개사 40건 242억달러 공사 진행
리비아 내전·에볼라·태국 물관리 재검토 등 동시다발 악재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있는 해외건설에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발생하며 올해 목표인 해외건설 수주 700억달러 목표 달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라크·리비아 내전과 함께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태국 물관리 사업 역시 사실상 물건너 갔기 때문이다.

11일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반군을 공습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과 관련, 이라크에 진출한 건설사들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헤에만 국내 건설사들이 80억달러를 수주한 이라크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는 20여개사로 총 40건, 242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6월 하순부터 인력 철수를 시작, 현재 30% 정도를 감축해 이라크에는 총 1000여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건설 인력은 930여명에 달한다

현재 국내 건설사들은 위험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피해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산될 경우 직원 철수 등의 후속조치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후속발주 등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리비아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이슬람 무장단체 간 전투가 격화됨에 따라 리비아

는 여권사용 제한국으로 재지정됐다. 현지에서 나간 국내 건설사들 대부분이 인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리비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는 모두 30여 곳으로 근로자만 400여명에 달한다. 특히 교전이 치열한 수도 트리폴리 등에는 당장 필수 인력만 남기고 대피시킬 방침이다. 필수 인력을 남긴 다고는 하지만 공사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역시 건설업계에는 악재다. 현재 바이러스가 출현한 4개국 가운데 나이지리아와 시에라리온 등 2곳에 국내 건설사가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이수건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 6월 현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들 대부분을 귀국시켰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은 사대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검역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늘리면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총 6조원 규모의 태국 물사업 역시 현지 쿠데타로 인해 진행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태국 군부가 물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이미 지난 2월께 현장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다.

이처럼 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터지며 연초 목표로 했던 해외수주 700억달러 달성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 들어 국내 건설사들은 중동지역에서 대규모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며 해외수주 신기록 달성 전망도 나오고 있었다.

한편 국내 건설사들은 7월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404억4429만달러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한 325억9518만달러보다 24% 늘어난 금액이다. 구성원 기자 carlove@

LTV·DTI 완화 시장서 ‘특효약’

서울 아파트값↑·부산 경매 활기

3주간 매매가 0.01%P씩 올라
지난달 부산 낙찰률 49% 기록

8월은 여름 휴가철로 이사 비수기지만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로 예년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LTV·DTI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매도인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

11월 부동산114에 따르면 LTV·DTI 규제 완화 발표 후 최근 3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주 0.01%포인트씩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매매가격 등락을 따져보면 매매값이 하락한 자치구는 8개에서 2개로 줄은 반면 오른 자치구는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신도시 제외)도 각각 0.02%, 0.01% 상승했다.

서울은 재건축 아파트가 0.15% 상승하며 매매시장을 이끌었다. 특히 정

부 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오르고 있다.

다만 매물과 시세에 대한 문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저가매물이 빠져서 매수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물이 없어 거래는 많지 않았다. 서성권 부동산 114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매도인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며 들쭉이 있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거래시장에는 선뜻 뛰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후속대책 발표와 과감한 실행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부산지역 아파트 경매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적옥션의 조사를 보면 지난달 부산지역 아파트 경매건수는 226건으로 이 중 111건이 낙찰돼 49.1%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6월 경매건수 178건과 낙찰률 46.6%에 비해 건수는 26.9%, 낙찰가율은 2.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강영관 기자 kwan@



현대산업개발, 하반기 9곳서 7785가구 공급

이달 ‘수원 아이파크 4차’ 시작
68%가 전용 59㎡… 실속 구성
내달 마곡지구 오피스텔 288실
가락시영 등 재건축 3290가구

현대산업개발은 8월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 분양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총 9개 단지 778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상반기 무등산 아이파크를 포함한 4개 단지에서 2261가구를 공급한 바 있어 하반기 물량을 포함할 경우 올해 총 1만46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상반기에 공급한 경북도청신도시 아이파크, 용인 서전2차 아이파크 등에서도 90% 이상의 계약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신규 물량을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하반기 신규 공급 물량의 31%를 자체 사업으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3290가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첫 주자는 8월 수원 아이파크 시티 4차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약 99만㎡의 부지에 6915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어우러져 개발되는 현대산업개발의 단독 민간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이번 4차 물량은 전용면적 59~84㎡ 아파트 23개동 1596가구 규모이며 수원 아이파크 시티 내 단일블록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59㎡ 4개 타입, 75㎡ 2개 타입, 84㎡ 1개 타입 등 총 7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 중 68%가량이 59㎡로 공급되며 최근 선호도가 높은 75㎡ 틈새 주택상품 등이 공급돼 실수요 고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9월에는 경남 거제시 양정동에서 거제

최초의 아이파크를 공급할 예정으로 전용 84~110㎡ 99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는 오피스텔 288실을 공급한다. 이어 10월에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 E1/E2블록에서 전용 45~70㎡ 4개동 49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도 예정돼 있으며 12월에는 자체사업으로 충남 서산 석림동에서 329가구 규모의 아이파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재건축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구역 조합원 분양을 시작으로 11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경남 창원시 용호5구역의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모두 연내 실시한다는 목표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상가경매 돈 몰린다

7월까지 낙찰가율 64% 사상최고

최근 상가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기를 끌면서 법원 경매시장의 상업시설 낙찰가율이 2001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은 평균 64.2%로 이 업체가 경매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월 기준으로 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은 2003년 최고 63.7%까지 올랐으나 이후 2005년 52.1%, 2009년 51.6%, 2011년 57.8% 등 50%대로 떨어졌다. 그러다 2013년 61.2%로 다시 60%를 넘기고 올해 들어 역대 가장 높은 64.2%로 올라섰다.

반면 경매에 부처진 상가 물건수(경매 진행건수, 이하 1~7월 기준)는 올해 들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에 가장 많은 3만7946건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이후 2005년 3만3280건, 2009년 3만240건, 2012년 1만9214건, 2012년 1만549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1만3145건을 기록했다.

경매 물건이 감소하면서 입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올해 상업시설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평균 2.9명으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강영관 기자 kwan@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8/11(월)	접수	충남	천안시	문화동	류진시티 ▲	041)621-6300
	발표	충남	천안시	문화동	류진시티 ▲	041)621-6300
	계약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일국엘리체프라임 (~8/13)	062)573-4404
	계약	경북	포항시	우현동	포항우현2차금성모닝 (~8/13)	054)274-5271
8/12(화)	접수	충남	천안시	문화동	류진시티(~2015. 10. 14) ▲	041)621-6300
	발표	전북	남원시	월락동	남원풍산누리안(공공임대) 1순위	063)631-6500
	발표	전북	제천시	화산동	제천시화스타힐스	043)644-7575
	접수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호반베르디움(A2-8) 1,2순위	1688-1131
8/13(수)	접수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물금지구1차EGthe1(36BL) 1순위	055)1899-0557
	발표	전북	남원시	월락동	남원풍산누리안(공공임대) 3순위	063)631-6500
	발표	경북	포항시	양덕동	포항창랑천년나루6블록(국민임대)	1600-1004
	발표	충북	충주시	안림동	충주안림1차천년나루1단지(공공임대)	1600-1004
8/14(목)	오픈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공예그린(정릉10구역)	02)941-7800
	접수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호반베르디움(A2-8) 3순위	1688-1131
	접수	광주	광산구	쌍암동	첨단지구중흥S-클래스리버시티 1순위	062)364-0001
	접수	광주	서구	매월동	한국아일랜드 1순위	032)528-7700
8/15(금)	접수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물금지구1차EGthe1(36BL) 3순위	055)1899-0557
	발표	광주	서구	치평동	삼무광명메이루즈	062-511-7400
광 북 절						054)531-0798

* (주1)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부동산114

8월 둘째주에는 △경기 성남 '위례호반 베르디움(A2-8)' 1137가구 △경남 양산 '양산물금지구1차EGthe1(36BL)' 415가구 △광주 쌍암동 '첨단지구중흥S-클래스리

버시티' 406가구 등 총 2970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천안에서는 '류진 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 소식도 들려온다. 구성원 기자 carlove@

메밀꽃 필 무렵 「봉평춘」

100% 국내산 메밀만 고집하는
최양락, 팽현숙 부부~

"아! 더워! 더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
"으흠... 시원한 메밀국수 먹을까?"
"좋아~ 좋아~ 메밀꽃 필 무렵 「봉평춘」, 메밀국수 해먹자. OK?"
"좋조! 저녁엔 메밀부침 OK?"

꼭, 꼭
"메밀꽃 필 무렵"
"봉평춘"을 확인하세요.

메밀꽃 필 무렵 봉평춘 제품

부침류: 메밀부침가루, 감자부침가루, 찰수수부침가루, 찰수수부침가루, 감자수제비가루, 메밀막국수, 메밀국수
면류: 메밀국수, 메밀막국수, 메밀면국수, 메밀비빔국수, 메밀칼국수, 메밀잔치국수, 찰수수국수, 메밀냉면, 메밀라면
미숫가루류: 메밀미숫가루, 삼곡미숫가루, 통팔면미숫가루, 차류: 메밀차

메밀꽃 필 무렵 봉평춘과 함께 할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대리점 및 문의전화 031-323-0052

www.bongpyung.com (인터넷 검색창에 '봉평춘'을 치세요.)

봉평춘 제품 주 판매처 Emart Home plus LOTTE Mart GS KIMS CLUB

[주]봉평농원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진동길 18-10 Tel 033.333.8942

우크라·이라크 등 지정학 리스크 고조

글로벌 금융시장 ‘조정기’ 들어가나

美·유럽·亞 증시 하락세
정크본드서 7조원 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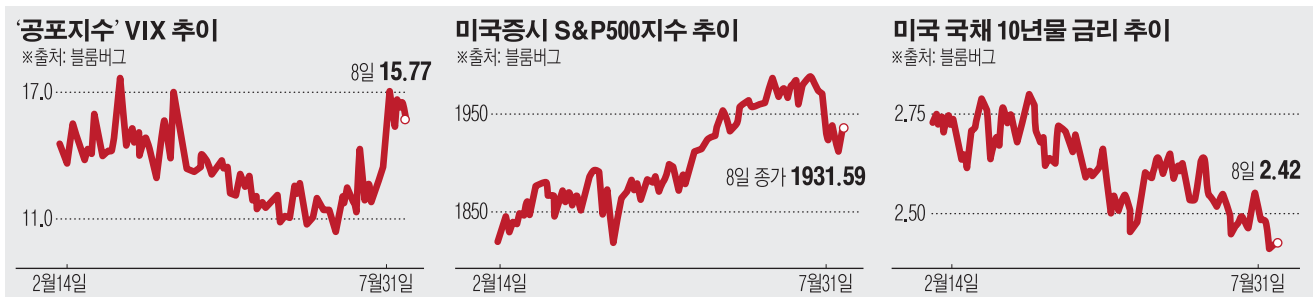
국채 등 안전자산 오름세
美·獨 10년물 금리 하락

주식과 정크본드(투자부적격등급채권) 등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어져온 글로벌 금융시장 벨라가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말판 기사에서 지난 수년간 지속된 위험자산 상승세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커진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이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지난 주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3일 7년여 만에 최저치인 10.32를 찍은 이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반등한 것이다.

미국증시 S&P500지수는 지난주 0.3%



올랐으나 지난달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1988에서는 약 3% 하락했다.

유럽과 아시아증시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가 지난 8일(현지시간) 3% 급락해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고 FTSE유로퍼스트300지수는 4개월래 최저치를 찍었다.

금융정보업체 리퍼에 따르면 지난 6일간 미국 정크본드시장에서는 71억 달러(약 7조4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이는 주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올들어 정크본드 자금 순유출 규모가 97억 5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안전자산인 미국과 독일 국채(분트) 가격은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국

채 10년물 금리는 8일 장중 2.37%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분트 10년물 금리는 1%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2년물 금리는 8일 한때 마이너스(-) 0.004%까지 하락했다.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우크라이나를 놓고 러시아와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도 지난 주말 이라크 수니파 반군인 ‘이슬람반군(IS)’에 공습을 개시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오는 10월 양적완화를 종료하기로 하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등 출구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TD아메리트리레이드의 JJ 키나현 수석

투자전략가는 “어떤 시장이나 자산, 특히 주식은 영원히 상승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은 지금의 시장상황이 통상적인 여름철 투매인지 더 큰 조정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며 연준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에 이런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라고 설명했다.

도이체뱅크의 짐 라이트 거시경제 투자전략가는 “세계 경제 회복세의 구조적 취약성은 특히 증시에 악재가 된다”며 “유럽은 러시아 제재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터키 첫 직선제 대선
에르도안 총리 당선

10일(현지시간) 터키 정의개발당(AKP) 앙카라 사무실에서 터키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에르도안 총리는 터키 민영방송 NTV와 CNN 등에서 개표상황을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 개표율 98% 상황에서 52.2%를 득표해 1차 투표의 당선 조건인 과반 득표수를 넘겼다.

오바마 “이라크 공습 장기전 될 수도”

미군 개입 얼마나 이어질지 몰라… 지상군 투입은 안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공습이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011년 철군 이후 처음으로 이라크에서 공습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수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군의 개입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서 지속적으로 말한 것과 같

이 미국 국민과 시설이 위협을 받는다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군 최고사령관인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라크 수니파 반군 ‘이슬람 국가(IS)’가 북부 아르빌로 진격한다면 추가 공습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날까지 IS에 대해 이틀째 공습을 단행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부 신자르지역에서 IS를 4차례 공습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일 IS가 이라크 최대 규모의 모슬렘과 기독교 마을을 장악하면서 대량학

살을 의미하는 ‘제노사이드(genocide)’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이라크에 대해 3년 만에 공습을 재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IS가 아르빌로 진격할 경우, 민간인의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해 공습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선포서 공습안을 승인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은 다만 지상군 투입을 포함해 전면적 개입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군의 막대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고 중동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에 따르면 이라크 반군의 박해를 피해 북부 신자르산으로 도피한 소수종파 야지디족 피란민 가운데 3만 명 정도가 10일 KRG 지역에 도착했다. 뉴욕=민대성 특파원 tsmin@

아프리카 경제 ‘에볼라’ 쇼크

다국적기업 잇따라 인력 철수
기니 올해 성장률 1.0%P 하향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에볼라 충격이 갈수록 현실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서방 주요 기업이 아직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인력을 빼내는 등 추축한 모습이 완연하다.

서아프리카의 에볼라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주요 감염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아프리카 진출 서방 대기업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다국적 건설총장비기업 캐터필러 대변인은 “라이베리아에서 10여 명을 철수시켰으며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민항사 BA도 이날 말까지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취항을 중단시켰다. 호주 철강회사 타와나리소시스도 “라이베리아에서 중요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모두 중단시켰고 비아프리카 인력도 전원 귀국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이며 경제국인 나이지리아의 에볼라 확산 속도에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미 에볼라 감염 사망자 2명을 포함한 9명의 에볼라 확진 환자가 발생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세계은행(WB)은 에볼라가 시작된 기니의 올해 성장전망치를 4.5%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대외관계위원회(CFR)의 존 캠벨 아프리카 선임연구원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공포가 더 커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가지 않고 많은 외국인이 떠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제가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짜퉁 퇴출” 알리바바, 명품 모시기

버버리·구찌 등 입점 때 무허가 유통업체 근절 약속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짜퉁시장 청소에 나섰다. 회사 온라인 몰에 입점하는 조건으로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짜퉁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간 버버리와 구찌 등 명품 브랜드는

알리바바 온라인 사이트에서 허가받지 않은 판매업체와 짜퉁제품 유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버버리와 구찌 등 명품 브랜드들이 자사의 온라인몰

“T몰(Tmall)”에 입점할 경우 이러한 골칫거리를 해결해줄기로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들 브랜드가 T몰 사이트에 온라인 스토어를 열면 인가받지 않은 유통업체를 해당 사이트에서 몰아내고 짜퉁과의 전쟁에 앞장서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대대적인 공약에 힘입어 알리바바는 뉴욕증시 데뷔를 앞두고 8곳의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데 성공했다.

버버리는 지난 4월 알리바바에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했으며 이전까지 버버리를

판매한 비인가 업체 50곳이 입점 전후로 모두 사라졌다.

짜퉁시장은 알리바바 매출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특히 이들 시장은 3000여 달러(약 309조원) 규모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알리바바가 해외무대 데뷔를 앞두고 기존의 수익사업을 버리는 등 체질개선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리더

“광고지불 방식, 페이스북 벤치마킹”

코스톨로 트위터 CEO 결단

기준엔 고객 반응 무조건 지불
웹사이트 방문·관련업 다운 등
광고주 원하는 대로 기준 변경



딕 코스톨로 트위터 CEO

딕 코스톨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광고사업부 수익구조 개선작업에 사활을 걸었다. 소규모 사업체를 광고주로 적극적으로 끌어모아 페이스북의 아성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스톨로 CEO는 경쟁사인 페이스북의 노후우도 적극적으로 배울 계획이라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 2분기 회사의 광고 매출은 2배 가까이 늘어난 3억1220만 달러(약 3242억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다는 것이 코스톨로 CEO의 판단이다.

트위터는 향후 수개월내로 광고주들이 광고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광고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따라 사업주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광고를 집행하려는 방법은 저마다 다양하다. 코스톨로 CEO는 사업의 분야는 다양하지만 소셜미디어 광고 집행 비용 지불 방식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트위터의 광고비용 지불 방식은 이용자가 광고주의 광고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관없이 반응할 경우에 광고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전략에 맞게 광고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고주가 트위터 이용자의 클릭이 해당 웹사이트 방문으로 이어질 경우에만 광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광고주가 새로운 팔로워를 얻게 될 경우나 광고주와 관련된 앱을 다

운로드 받을 때, 또는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얻게 될 경우 등 광고주의 사업에 맞게 광고비용 지불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WSJ는 트위터의 이러한 광고 비용 지불 방식 구조 개선 시도는 이미 페이스북이 시도한 것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이미지와 비슷한 광고주에 대해 광고 캠페인 집행에 대한 여라가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WSJ는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선작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인적 물적 자원이 대기업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서는 이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의류업체 보노보스 마케팅 부 분 부대표인 크레이그 엘버드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성과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이익이라고 본다”면서 “트위터의 이러한 업데이트는 광고주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리포트

이란 여객기 추락 탑승객 일부 생존

이란의 수도 테헤란 메라바드공항 인근에서 소형 여객기가 추락해 39명이 사망했다고 10일(현지시간) 이란 국영TV가 보도했다.

이날 오전 9시 18분경 타반항공 소속의 이란-141 여객기는 메라바드공항을 이륙한 직후 인근 아자드의 주거지역에 추락했다. 동북부 타바스로 향하던 사고 여객기는 어린이 7명을 포함한 4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당초 이들 탑승객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일부 승객의 생존이 확인됐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여객기 추락으로 말미암은 지상에서의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여객기의 추락원인은 엔진 정지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여객기 타반항공의 이란-141는 이란과 우크라이나와의 기술 협력으로 생산한 소형 기종으로 국내선 항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란은 노후화된 여객기와 허술한 여객기 관리 등으로 항공 사고가 잦기로 악명이 높다. 이란항공 등 이란 4대 항공사 여객기 평균 기령은 모두 22년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정부 압력에 외제차 가격 인하

중국 반독점 당국의 잇따른 철폐에 외국 자동차업체들이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 토요타와 혼다가 중국 내 부품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미 독일 다임러의 메르세데스-벤츠와

폭스바겐의 아우디, BMW 등 다른 럭셔리 자동차업체들도 최근 완성차와 부품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토요타와 중국 GAC그룹과의 합작사인 GAC토요타는 오는 18일부터 일부 부품가격을 인하한다. 혼다 중국 합작법인인 광저우자동차도 9월 1일부터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은 외국업체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게 차량이나 사후정비용 부품을 판다는 불만이 고조됐다. 반독점 위반행위 단속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아우디와 크라이슬러를 처벌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마존, 월트디즈니 DVD 판매중단

세계 최대 온라인판매업체인 아마존이 월트디즈니 영화 DVD의 예약 판매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월트디즈니 영화제작사가 만든 영화 DVD와 블루레이 디스크의 예약판매를 중단시켰다. 회사 측은 판매중단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판매가 가능해질 경우 별도의 공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예약 판매가 중단된 월트디즈니 DVD 제품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탈레판트’, ‘퍼펙트 모스트 워티드’ 등이다. 다만 아마존을 통해 디지털 버전을 구입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WSJ은 아마존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아마존이 콘텐츠업체와의 판매 수수료 분쟁을 해결하려고 여러번 이용했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메신저'를 내세운 글로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대중화가 정착되면서 유료 문자서비스(SMS) 대신 무료 메시징 전송과 집단 채팅이 가능한 메신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제앰리틱스(SA)가 전망하는 내년 기준 전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25억명에 달한다.

휴머노이드 사설은 자국민이 여전한 토종 메신저 서비스가 오히려 해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자 한다는 점이다. 인레모 국내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라인은 오히려 일본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1000만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이는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를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침범하는 경우엔 적극적인 방어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자국 산업 보호에 민감한 중국이 적극적이다. 중국은 지난해 초 중국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의 라인과 카카오톡 등을 차단했다. 이처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용자 확보에 자국 업체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자는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이 국적을 불문한 이용자 확보를 위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용자 수뿐 아니라 추가적인 서비스로 수익 모델이 정착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CT)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실제 글로벌 기업들의 메신저 사업자 인수합병(M&A) 움직임은 올해 들어 상당히 활발해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2월 왓츠앱을 190억달러(약 20조원)에 인수했으며,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도 '바이버'를 9억달러(약 9550억 원)에 사들였다.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도 지난 3월 알신 메신저 '뎬고'에 2억1500만달러(약 2300억원)를 투자해 5%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인들의 필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은 메신저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 현황과 각각 기업들의 현주소,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현지화 전략 등을 알아본다. 하유미 기자 jcs508@

스마트폰 사용자 25억 시대… 글로벌 메신저 국경 초월 ‘新영토전쟁’



위챗

‘텐센트’ 지원 아래 中 접수… 이제 세계로

(후 최대 인터넷 기업)

말레이·필리핀·인·멕시코 시장 진출
‘위챗TV’ 출시 유료 콘텐츠 서비스도

위챗의 가입자는 전 세계적으로 6억명에 달한다. 지난 1분기에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87% 늘어난 4억명을 넘어선 데 이어, 2분기에 또 2억명이 추가될 정도로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사용자 6억명 중 5억명은 중국 자국민이다. 나머지 1억명이 해외 가입자다. 자국 사용자에게 힘입어 위챗은 최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멕시코 시장에 진출해 세계 제패를 꿈꾸며 글로벌화에 집중하고 있다.

위챗의 가장 큰 강점은 모 기업인 텐센트의 막대한 지원이다. 시가총액 125조원에 달하는 텐센트는 SNS와 게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이다. 위챗은 막대한 사용자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배포하는 플랫폼형 메신저다.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 정보를 소개 받고 다운로드 등을 쉽게 연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텐센트는 지난해 12월 위챗으로 TV 프로그램을 컨트롤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위챗TV를 출시했다.

위챗은 특히 내부 결제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프리미엄 콘텐츠

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텐센트는 지난해 8월 위챗 사용자들이 온라인 뱅킹 계좌를 링크해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런 다양한 기능 외에도 위챗은 채팅방의 메시지 보내는 기본 방법으로 음성 메시지를 추가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구와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영상통화 기능도 정점이다.

이밖에 사용자 주변에 위챗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요소로 꼽힌다. 이와 같은 기능들이 중국어는 물론 영어·한국어·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 등 15개 언어로 번역돼 지원된다.

위챗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아르헨티나와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를 광고 모델로 발탁해 친근감을 더했다. 특히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활발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특정 버틀러 전문점과 연계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후원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동남아 시장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위챗이 중국을 넘어 글로벌화의 일환으로 비교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시장을 정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근 기자 nova@



카카오톡

메신저 넘어 게임·쇼핑·금융까지 ‘영토 확장’

540여 게임으로 올 상반기 매출 5600억… ‘뱅크월렛’ 등 수익사업도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누구나 한번쯤은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가 있다. 국내 가입자만 3700만명, 전 세계 1억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다. 카카오톡은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랫폼을 넘어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게임·쇼핑·광고 등 다양한 사업을 접목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카카오의 수입원은 카카오톡을 위해 15개 시종은 렌과 손을 잡았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톡에 가상 지갑을 만들어 한 번에 최대 50만원까지 충전해서 하루 10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실제 은행계좌 1개를 등록, 은행계좌에

게 메시지를 부르는 서비스다. 카카오톡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우버택시’와는 달리 정식 택시면허를 가진 영업용 택시와 서비스 제휴를 하고 있다.

카카오는 금융결제 시장에도 발을 디딤을 었 있다. 카카오는 이른바 내달 ‘뱅크월렛 카카오’와 카카오 간편결제(가칭)를 잇따라 시행하며 금융 서비스에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는 뱅크월렛 서비스를 위해 15개 시종은 렌과 손을 잡았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톡에 가상 지갑을 만들어 한 번에 최대 50만원까지 충전해서 하루 10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실제 은행계좌 1개를 등록, 은행계좌에

은 현금을 카카오톡 가상계좌로 이체(충전)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에는 가래 은행 현금 카드 기능도 넣어 은행 자동화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잔액 조회도 할 수 있다.

카카오는 또 내달 중 LG CNS의 ‘엠펜이’ 기술을 활용해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 카카오톡 앱에 개인 신용카드를 등록, 모바일 결제 시 간단하게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우선 모바일 쇼핑물에 도입하고 향후 PC용 온라인 쇼핑물에서도 적용된다. 카카오는 LG CNS와 손 잡고 LG CNS의 가맹업체 전 분야로 카카오펜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2010년 3월 처음 서비스된 카카오는 최근 다

음과 합병을 결정. 오는 10월 통합법인 다음카카오로 제2의 도약을 꾀할 예정이다.

김병근 기자 nova@



라인

‘현지화 스티커’ 전략 적중… 日 인구 절반이 가입

국민감성 과학해 캐릭터 상품화
전체 매출의 80% 일본서 발생

전 세계 ‘라인’ 이용자가 4억8000만명 중 10%가 일본인이다. 이는 일본인의 절반가량(5200만명)이 라인 사용자라는 의미다. 실제 라인 매출의 80% 이상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정도면 국내 서비스 ‘라인’이 일본을 강타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인은 처음부터 일본 메신저 시장 공략을 목표로 개발된 서비스는 아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절수하지 못한 나이바 현지 직원들이 연락을 관리하게 주고받기 위해 만든 서비스가 예상 밖의 결과를 낸 것이다.

이처럼 라인이 ‘국내 인기 브랜드조차 일본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법칙을 단시간에 깨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당시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메신저 서비스가 딱히 없었는 점도 기회로 작용했지만, 일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기 요인을 ‘스티커’라고 말한다.

라인은 해당 국가 전통의상을 캐릭터화하는 등 지역별 마케팅 전략의 핵심 아이템으로 스티커를 적극 활용했다. 라인의 스티커 전략은 각국 국민감성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캐릭터로 개발해 메신저 스티커에 적용한 것으로 현지화를 제대로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인은 스티커의 인기를 오프라인 상에서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캐릭터 상품을 오프라인 라인샵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스티커 판매를 통한 매출은 라인의 전체 매출에서 2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톡의 해당 매출 대비 10배가 넘는 수치다.

또 라인은 사업 범위를 캐릭터에 국한하지 않고 ‘라인뮤직’, ‘라인콜’ 등 다양한 분야로 영

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지금까지의 라인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Beyond Line’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발표하기도 했다.

라인이 급성장하는 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70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인 관련 인력도 일본 800명, 한국 500명, 해외법인 100명 등 모두 1400명에 달한다. 그렇지만 사용자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손익분기점은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인은 일본 외에도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타이완, 태국 등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스페인 등 유럽에서도 라인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현재 이들 국가를 포함한 10개국에서 각각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라인은 지난 2분기 들어 처음으로 일본 외 지역에서 매출 비중 20%를 넘겼다.

하유미 기자 jcs508@



왓츠앱

세계 1위… 페이스북에 인수되며 ‘제2의 도약’

‘원조’ 모바일 메신저… 가입자 수만 7억명
매일 3억2000만명이 530억개 메시지 전송

‘왓츠앱(WhatsApp)’은 한 마디로 모바일 메신저의 ‘조상’급이다. 카카오톡과 라인 등은 사실 왓츠앱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메신저가 무료로 제공된 데 반해 왓츠앱은 매년 0.99달러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왓츠앱의 국내 사용자 수는 많지 않지만 미국, 유럽, 인도 등에서 왓츠앱의 인기는 대단하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에 20조원에 인수되면서 사용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왓츠앱은 최근 보고를 통해 액티브 유저가 5억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왓츠앱이 페이스북에 인수된 것은 올해 2월 17일 로 당시 왓츠앱의 월간 액티브 유저는 4억5000만명, 데일리 액티브 유저수는 3억2000만명이었다. 유저수보다 더 큰 의미인 가입자 수는 7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왓츠앱은 저시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브라질·인도네시아·러시아 등에서 빠른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인수되면서 매일 약 2500만명의 유저를 획득하는 등 사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사용자 충성도 역시

높아 사용자 10명 중 7명은 왓츠앱을 남다른 사용한다. 또 이들 사용자 하우에 보내는 메시지는 190억건, 받는 메시지는 340억건에 이른다. 전세계 문자메시지 사용량과 비슷하다.

그러나 5억명이란 사용자 수를 보유한 왓츠앱이지만, 유독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바로 아시아권 사용자들이 온라인 콘텐츠의 무료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왓츠앱은 광고나 게임 등을 붙이지 않는 대신 유료 정책을 고수한다.

왓츠앱은 이와 함께 집중화 전략을 고집하고 있다. 왓츠앱 측은 “왓츠앱은 무엇이 통하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유령에 흔들리지 않는다. 왓츠앱은 결핵시 기어 또는 구름 글꼴을 앱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유저가 있는 곳이다. 블랙베리용 앱은 개발했다”면서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왓츠앱의 창업자는 브라이언 액트와 안 코요이다. 이후 직원 이턴 두 사람은 2009년 왓츠앱을 개발했다. 이후 0.99달러만 내면 메시지를 공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고, 휴대전화의 주소록과 연동해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기능도 선보였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왓츠앱은 10억 인구를 연결하는 길에 서 있다”라며 “열린 세계, 연결된 세계를 만드는 비전”을 함께 이끌어 갔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119@



텔레그램·바이버·이뮤·스냅챗 등

글로벌 기업들, 특화 서비스로 소비자 유혹

‘텔레그램’ 보안력·‘바이버’ 무료전화·‘이뮤’ 인공지능 특화기능 무장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공략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전쟁이 치열하다. 서로의 기능을 그대로 따라하는가 하면, 무료 이모티콘이나 무료 게임 서비스 등으로 이용자를 유혹하고 있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아직까지 어떠한 해커도 뚫지 못한 보안력, 해커들을 통해 “데이터를 팔지 않고, 광고를 넣지 않고, 사용자 수를 늘려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서도 공개주의가 그대로 나타난다.

텔레그램에 이어 바이버는 전화를 주 기능으로 하는 메신저다. 다른 여러 업체들 메신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출시 스카이프와 비슷해 보이지만 스카이프와 바이버 사용자들은 김된다. 최근에 바이버는 일본의 오픈마켓 라쿠텐에 9억달러에 인수되기도 했다.

구글도 모바일 메신저 ‘이뮤(iMu)’를 인수했다. 구글은 자체 메신저 ‘행아웃’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가 많지 않다. 지난 선출해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유는 사용자 간 대화 내용을 파악해 상황에 맞는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특징이다. 음성인식 방식으로 사용자 의 명령, 예약, 정보검색, 위치 등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최근 미국의 메신저 서비스 스냅챗에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냅챗은 보낸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특징을 가졌다. 러시아의 텔레그램과 유사하다.

하지만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층은 텔레그램보다 두텁다. 가입자 수는 약 800만명으로 적지만 주 사용자의 연령대가 13~25세로 IT 기

김태현 기자 119@

Hi Seoul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FORCS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OZ

재개발 없이 그대로 앱에서 보고서를 본다!

하나의 소스로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스마트 OZ

OZ Report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PC에서 별도의 개발 없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식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한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별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제품문의문의: 02) 3676-1100

특약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국내 제1차에 제1회 대한민국 영구삭제 대상을 수상

소프트웨어인증인증서

ViRobot DataEraser v1.0



www.hauri.co.kr

www.forcs.com

(주)포시메스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2층 · 대표전화 02)828-1400 / 제품문의 02)828-1431 / 팩스 02)828-1414



LPGA투어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한 이미림.

AP뉴스시

연장점전 끝 박인비 꺾고

이미림 LPGA 첫 승

마이어 LPGA 클래식 우승... 데뷔 첫해 '첫승·박인비' 대어 사냥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림은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골프장(파71·6414야드)에서 열린 마이어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15억4000만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쳤다.

이로써 이미림은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로 박인비(26·KB금융그룹)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었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 첫 번째 홀에서는 두 선수 모두 파로 막아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17번홀(파4)에서 진행된 두 번째 연장 승부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박인비를 제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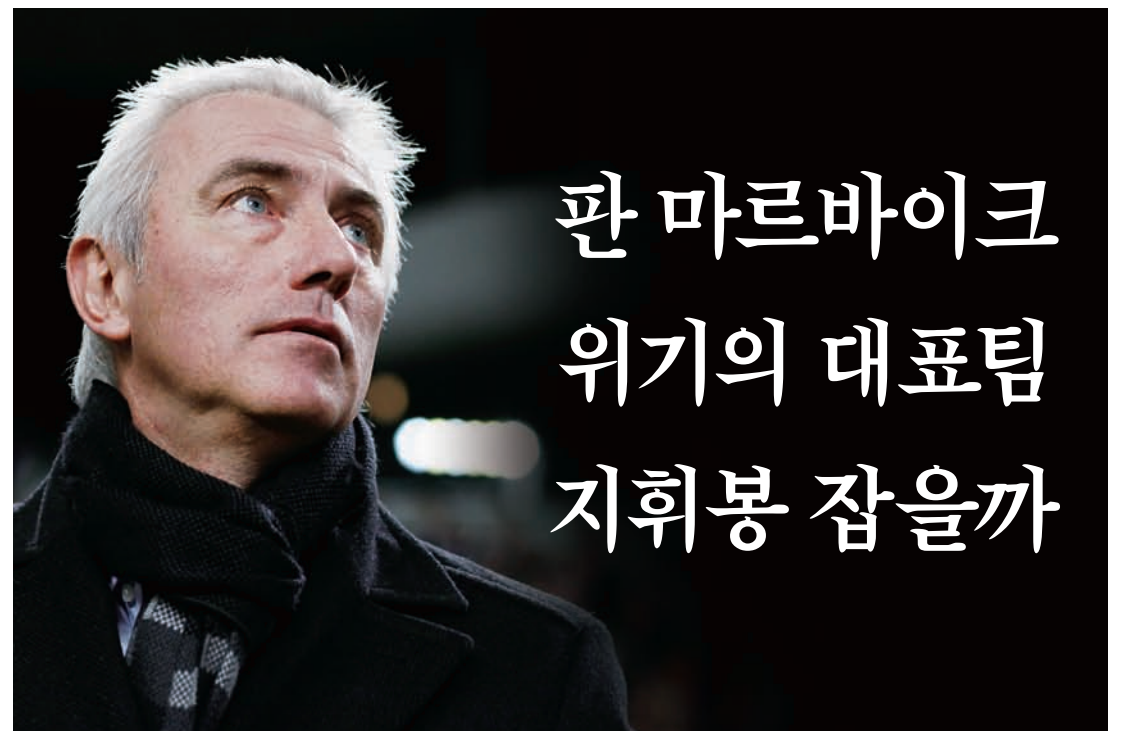
이미림은 2번홀(파3)에서 보기를 범하며 흔들렸지만 5번홀과 8번홀(이상 파5)에서 각각 버디를 잡아내며 전반을 1언더파로 마쳤고, 11번홀(파5)에서 다시 버디를 추가한 이미림은 14번홀(파3)에서 보기를 한 타를 잃었지만 15번홀(파4)에서 끝바로 한 타를 만회하며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갔다.

반면 박인비는 1번홀(파5) 버디로 기본 줄게 라운드를 시작했다. 2번홀(파3)을 파로 막은 후 3번홀(파4)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내며 상승세를 탔다. 이후 9번홀(파4)까지 전부 파로 막은 박인비는 전반 라운드를 2언더파로 마치며 시즌 2승을 향해 순항했다. 그러나 14번홀(파3)에서 통탄의 보기를 범한 박인비는 이미림과 수잔 페테르센(33·노르웨이)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페테르센은 13언더파 271타로 3위에 올랐고, 9언더파 275타를 친 양희영(25·KB금융그룹)은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29·미국)는 5타를 줄이며 선전했지만 합계 6언더파 278타로 11위에 만족했다.

이에 앞서 10일 일본 홋카이도의 삿포로 국제골프장 시마마쓰 코스(파72·6473야드)에서 열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메이저컵(총상금 9000만엔·9억1500만원) 최종 3라운드에서는 신지애(26)가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로 우승했다. 시즌 두 번째 우승이자 JLPGA투어 통산 7승째다. 우승상금은 1620만엔(1억6000만원)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판 마르바이크 위기의 대표팀 지휘봉 잡을까

현역 시절 미드필더로 명성 날려

페예노르트서 송중국·이천수 인연

네덜란드 '남아공 준우승' 이끌어

현재 축구대표팀 감독 영입 1순위

'실리축구' 고집... '재미없다' 비판도

축구協 "이번 주 안에 협상 마무리"

갈림길에 놓인 한국 축구가 베르트 판 마르바이크(62·네덜란드)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과 2시간가량의 짧고 굵은 협상을 마친 판 마르바이크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차기 감독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현역 시절 미드필더로 명성을 날린 판 마르바이크 감독은 1998년 네덜란드 2부 리그 포르튀나 시타르트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2000~2004년, 2007~2008년 페예노르트를 지휘하며 UEFA컵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감독으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네덜란드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한국과 인연을 맺은 역대 외국인 감독들은 대부분 실패를 맛봤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첫 외국인 감독은 데트마어 크라머(89·독일)다. 1991년 U-23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크라머는 김삼락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과 잦은 마찰 끝에 1992년 3월 해임됐다.

이후 한국 축구는 외국인 감독에 대한 필요성은 느꼈지만 반대 세력에 부딪혀 선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둔 한국은 월드컵 본선 첫 승과 16강 진출이라는 숙원을 풀기 위해 거스 하딩크(68·네덜란드)를 영입,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하며 역대 외국인 감독 중 유일한 성공 사례를 남겼다.

오상민 기자 golf5@

하딩크 이후 움베르투 코엘류(64·포르투갈)와 조 본 프레레(68·네덜란드)가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만을 남긴 채 돌아갔다.

딕 아드보카트(67·네덜란드) 감독은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사령탑에 올랐다. 아드보카트는 독일 월드컵에 출전해 조별예선 1승 1무 1패(승점4)로 비교적 선전했지만 16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표팀의 수석코치를 맡았던 펠 베퍼벡(58·네덜란드) 감독은 아드보카트 감독의 후임으로 사령탑을 맡았지만 부진한 성적으로 대표팀을 떠났다.

이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허정무 감독이 16강 진출을 이뤄 외국인 감독이 아니라도 충분히 국제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나 2014 브라질 월드컵 수장을 맡은 홍명보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두고 귀국했다. 부진한 성적보다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빛은 문제점과 현대 축구 트렌드 분석에 실패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하며 축구팬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이용수 기술위원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감독 선임을 결정했다.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3명의 감독 후보 중 한 명인 판 마르바이크 감독을 만나 두 시간 정도 이야기했다"며 "판 마르바이크 감독은 기본적으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 협상은 일주일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판 마르바이크 감독은 페예노르트 감독 시절 송중국과 이천수를 영입하는 등 한국 선수들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다.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없을 뿐 아니라 한국 선수들에 대한 정보력도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판 마르바이크 감독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출전 당시 극단적인 실리 축구를 고집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용보다 결과를 중시해 재미없는 축구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특히 네덜란드 외 국제무대 경험이 많지 않아 세계 축구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판 마르바이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 축구가 2002년 하딩크에 이어 외국인 감독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유럽 프로축구에, 美 프로농구에...

‘금녀의 벽’ 깬 여성 지도자

여성들의 용감한 도전이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있다. 대표적인 '금녀 구역'으로 알려진 유럽 축구 무대에 여성 감독이 선임되는가 하면 미국프로농구(NBA)에는 여성 코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코린느 자크르(40)

는 유럽 프로축구(2

부 리그 이상) 클럽에서 지휘봉을 잡은 첫 번째 여

성이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2(2부 리그)의 클레

르몽 푸트 사령탑에 오른 자크르는 5일 프랑스 브

레스트에서 열린 2014~2015시즌 브레스트와의 개

막전에서 1-2로 역전패하며 아쉬움이 남는 데뷔전

을 치렀다. 그러나 그는 큰 소리로 선수들을 장악

하는 등 카리스마를 발산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올스타에 6차례나

이름을 올린 베키 해먼(37)은 2013~2014시즌 NBA

챔피언에 오른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코치로 선임됐

다. WNBA의 스타가드였던 해먼은 1999년 WNBA

에 정식 데뷔해 뉴욕 리버티와 샌안토니오 스타스에



베키 해먼



코린느 자크르

서 맹활약했다. 올스타에 6차례나 뽑힐 만큼 스타플레이어였던 그는 "엄청난 도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성이 많은데, 나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성인 남자 팀의 여성

감독은 아직 단 한 명도 탄생하지 않았다. 몇몇 선

수들이 여성 팀 사령탑으로 부임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은 보이지 못했다. 국내 1호 여성 스포츠 감독

인 박신자(73)는 1982년 신용보증기금 창단 감독

을 맡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여자프로농구(WKBL) 첫 여성 감독인 이옥자

(62)는 2012년 KDB생명에서 13승 22패라는 초라

한 성적만을 남긴 채 1년 만에 사퇴했다. 이 감독

은 최근 일본여자프로농구(WJBL) 아이신 AW

윙즈 사령탑을 맡아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2008년부터 여자실업축구(WK리그) 부산 상무

를 이끌고 있는 이미연 감독(39)은 최근 두 시즌 연

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왜? 어째서! 냉장전용 유산균

1. 건강전문가 약사들이 선택한 냉장 유산균(현 가맹약국 2,500호 돌파)
2.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비타민하우스가 만드는 유산균은 믿을 수 있습니까
3. 품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장용성 캡슐로 장까지 살아가는
프리미엄 유산균 550

국내유일
550억 CFU
생균 투입!

12종 유산균
+아연+셀렌

전 과정
냉장유통
시스템

공기습기차단
PVDC
특수포장



우리가족 생생 유산균

- 1캡슐 300억 CFU투입
- 식약처인증 안전성 높은 8종의 균주
- 식물성 캡슐 사용
- 물과 함께 섭취



우리아이 생생 유산균

- 1포 60억 CFU투입
- 배변활동을 생각하는 우리아이 제품
- 無 합성착향료,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 이유식 분유에 타서 먹는 유산균



Probiogut 은 건강기능식품기업 비타민하우스의 냉장유통 유산균 전문 브랜드입니다.
★냉장유통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 비타민하우스를 꼭! 확인하세요.

Vitamin House
제품문의 1588-8529



DdM

비타민하우스

전국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코너에서 만나보세요.

할아버지 된 두 재계 총수 ‘함박웃음’

2012년 사돈 맺은 한라 정몽원·현대중 이재성 회장
지난달 31일 ‘첫 손주’ 소식에 열일 제치고 병원 찾아

지난달 31일 오후,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이재성 현대중공업 회장이 급하게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두 총수가 동시에 병원을 찾은 것은 2012년 12월 결혼한 두 회장의 장남, 장녀 내외의 첫 출산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정 회장의 딸 지선씨와 이 회장의 아들 윤형씨는 각각 건강한 손주를 두 총수의 품에 안겨줬다. 정 회장, 이 회장 모두에게 첫 손주였던 만큼 이들 총수는 하나같이 크게 기뻐했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자리에서만 큼은 재계의 현안보다는 가족이 먼저였

던 셈이다.

두 딸을 둔 정 회장은 평소에도 ‘딸 바보’로 알려졌다. 여 기자의 낱카로운 질문에도 “내가 딸 생각이 나서…”라고 운을 띄우며 성의껏 답변해 주는 그다. 이 회장은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정 회장과 웃으며 환담을 나눴다고도 한다.

정 회장과 이 회장이 첫 손주를 안은 기쁨도 잠시. 이들은 병원을 나선 직후 각기 바쁜 회사 일정을 소화했다. 평소에도 휴일 없이 일하는 두 총수로 알려졌다. 다만 특히 최근엔 한라그룹과 현대중공



왼쪽부터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이재성 현대중공업 회장

업은 중요 현안이 많다.

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만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회사를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와 사업회사인 (주)만도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그룹의 큰 현안을 해결했다. 그러나 한라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

서는 자동차 부품회사 만도의 글로벌화와 전장 부문의 기술력 확보가 절실하다. 정 회장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회장의 경우 며칠 뒤 중동으로 출장을 떠났다. 공사 지연으로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소 건설 등 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현지 직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한편, 지선씨와 윤형씨는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출산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형씨는 내년께 현대중공업에 입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韓·쿠바 교류협회 정호연씨
한국인 ‘쿠바 영주권 1호’

쿠바 현지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위해 일하는 정호연(42·사진)씨가 한국인 최초로 쿠바 영주권을 따냈다.



민간단체 ‘한·쿠바 교류협회’ 간사인 정씨는 지난 4일(현지시간) 쿠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얻었다. 1921년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민한 1세대가 재이주한 이래 한국인 출신이 공산권 국가이자 비수교국인 쿠바에서 영주권을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기획과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분야를 공부한 정씨는 지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인 후속 프로그램 제작 당시 쿠바를 방문했다가 지금에 이르게 됐다. 쿠바 현지인과 한인 후손들 사이에서 그는 ‘정 감독’으로 불리고 있으며 2007년 쿠바인과 결혼하고서 아들(6)을 낳고 쿠바에 완전히 정착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딸 살해 누명’ 재미교포, 25년만에 ‘자유의 몸’

‘종신형 복역’ 이한탁씨, 美연방법원 “검찰측 증거 비과학적… 판결 무효화”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한탁(79)씨가 유죄판결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 월리엄 닐런 판사는 “이씨에게 내렸던 방화·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8일(현지시간) 내렸다. 또 닐런 판사는 “검찰은 앞으로 120일 안에 재기소하거나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98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미국 교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결백을 호소해온 이씨가 마침내 누명을 벗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씨는 지난 1989년 7월 29일 새벽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스트라우드 타운십에 있는 한 수양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감옥에 가게 됐다.

교사생활을 하다 1978년 뉴욕으로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이 8일(현지시간) 이한탁씨에게 내려졌던 종신형 무효 판결을 내렸다. AP뉴시스

이씨는 맨해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이민자였다. 당시 20세인 큰딸 지연씨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수양관에 갔다가 발생한 화재로 이씨는 탈출했으나 지연

씨는 수양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누전 등 사고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는 화재 전문가의 조사보고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평소 딸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이씨가 건물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고 그의 옷에 묻어 있는 발화성 물질이 그 증거”라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이씨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지난 5월 29일 이씨의 재판에 대해 유효성을 가리고자 열린 법원의 ‘증거심리’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증거가 과학적이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이씨의 유죄판결이 무효화됐다.

이씨의 변호인 피터 골드버그가 “다음주 이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이 없는 한 이씨는 올해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를 기소했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먼로카운티 검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손연재 “AG 준비 이상 無”

던디 월드컵, 개인종합 이어 종목별 결선서 추가… 銅 3개

손연재(20)가 국제체조연맹(FIG) 던디 월드컵 개인종합 동메달에 이어 종목별 결선에서도 두 개의 동메달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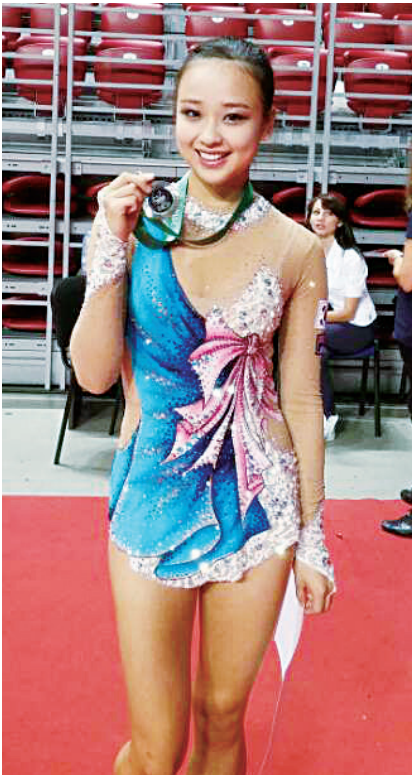
손연재는 10일 밤(이하 한국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종목별 결선 후프와 볼 종목에서 나란히 3위에 입상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서 세 개의 동메달을 목에 건 손연재는 지난 3월 모스크바 그랑프리 이후 올 시즌 출전한 6차례 대회에서 전부 메달을 획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손연재는 종목별 결선 첫 종목인 후프에서 17.900점을 얻어 러시아의 아나 쿨다랍체바(18.600점·금메달), 벨라루스의 엘리타나 스타니우타(17.950점·은메달)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볼 연기에서는 17.700점으로 쿨다랍체바(18.750점·금메달), 마르가리타 마문(이상 러시아·18.450점·은메달)에 이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손연재는 취약종목인 곤봉과 리본에서 각각 4위와 5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앞서 손연재는 9일 밤 열린 개인종합에서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는 깔끔한 연기를 펼치며 동메달을 따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전망을 밝혔다.

한편 대회를 마친 손연재는 러시아로 돌



개인종합 3위에 오른 손연재가 시상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IB월드와이드

아가 개인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인천 아시안게임 전까지 한 차례의 월드컵에 더 출전한 후 9월 말 귀국 예정이다.

오성민 기자 golf5@

박병진 美 하원 의원, 공화당 ‘뜨는 별’

미국 남부에서 한국계 최초로 박병진(40·영어명 B.J 박·조지아주·사진) 하원의원이 공화당의 ‘떠오르는 별(Rising Star)’로 선정됐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하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을 포함한 4명을 ‘떠오르는 별’로 선정했다. RNC는 선정 이유를 “타고난 재능과 혁혁한 성과를 내며 ‘자유와 기회’라는 당의 메시지를 구체화한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공화당과 보수진영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전도 유망한 젊은 보수 인사에게 주는 칭호인 ‘떠오르는 별’은



공화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당내 저변을 확대하는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해 출범했다. 현재까지 총 18명이 선정된 가운데 한국계로는 박

의원이 유일하다.

연방 검사로 활동하다 2010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동부 워싱턴 시인 랠프 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박 의원은 미국 남부 최초이자 유일한 한인 의원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지역구에 단독 출마해 3선이 확정된 상태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해외 한인 공학자들, 中企 해외진출 돕는다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발족

해외의 한인 기술자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뭉쳤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외 거주 한인 공학자들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 멘토링을 담당토록 하는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을 공식 발족했다.

K-TAG는 외국과의 기술협력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해외 한인 공학인 전문가 풀(Pool)이다. K-TAG는 향후 △기업들의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물색 △애로기술 해결 위한 기술 자문 △국내 기업과 공동 R&D과제 기획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KIAT는 K-TAG 구성을 위해 올초 미국 지역에서 7개 분과 106명, 유럽 지역에서 4개 분과 56명을 선정했다. 미국에선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화학, 정보

통신,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를, 유럽은 재료소재부품, 에너지환경, ICT융합, 의약품바이오 분야 전문가를 낙점했다. KIAT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 기술협력, 공동 R&D 추진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훈 KIAT 원장은 “K-TAG에 소속돼 있는 한인 공학자들은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뚜렷한 입지를 굳히며 활약 중인 인재”라며 “이들이 앞으로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을 상대로 선진기술 체험 노하우를



전수한다던 기업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K-TAG 소속 공학자 김도원 박사는 “권역별 문화, 환경적 특성, 기업의 세부 수요를 잘 고려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유 기자 thec98@

인사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남궁석 ◇이사관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파견 임석순 △의사국장 장대섭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조기열 (전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김광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한근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배용근 (파견) △기획재정부 정재인 (파견복귀)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부년 ◇부이사관 (전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를관 김대형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의관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의관 박창호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정성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의관 정연호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의관 양재국 (파견) △국가정보원 제수근 △통일연구원 홍진성

◆국무조정실 ◇외교통무원(국장급) 전

보 △안전환경정책관 남형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원 승진 △식품수출이사 유종식

◆서울시 SH공사 ◇처장급 △주택사업본부 마곡사업처장 박광기 △공공주택본부 공사처장 조래섭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전보 △인재혁신본부 정유인 ◇지점장 전보 △동부이촌지점 김대홍 △왕십리역지점 권성혁

◆경남은행 ◇3급 승진 △WM사업부 부부장 이점훈 △검사부 선임검사역 이수락 △경남대지점 부지점장 이상배 △경영기획부 부부장 박춘희 △경은복지지원팀 부부장 백동현 △김해삼계지점 부지점장 이재영 △마케팅기획부 부부장 김지환 △비즈니스관리부 부부장 김동겸 △서상지점 부지점장 황철환 △서울본부 부부장 신정욱 △언양지점 선임심사역(CMO) 민필재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강영선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김부완 △여신심

사부 선임심사역 김한수 △인사부 부부장 김용우 △중앙동지점 부지점장 김관옥 △창녕지점 선임심사역(CMO) 추영옥 △창원시정지점 부지점장 김민수 △투자금융부 부부장 이승기 △팔용동지점 선임개입고객전담역(PB) 한현주 △팔용동지점 선임심사역(CMO) 조중배 △평거동지점 선임개입고객전담역(PB) 손미경 ◇4급 승진 △IT운영부 과장 박정자 △경영기획부 과장 신태기 △구미공단지점 과장 최환석 △기업고객사업부 과장 조현성 △마산사유무역지점 과장 박진호 △보양동지점 과장 윤동길 △성과평가팀 과장 강근홍 △아음동지점 과장 최윤영 △양산기업금융지점 과장 유성환 △여신기획부 과장 이승민 △여의도지점 과장 이영실 △외동기업금융지점 과장 홍경민 △울산본부 과장 김경록 △충양동지점 과장 안성진 △차세대주진부 과장 문성욱 △창녕지점 과장 박진수 △충무부 과장 이효석 △태화

동지점 과장 성상윤 △함안상공회의소지점 과장 김상진 △해운대지점 과장 김혁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바로처리실 행정실장(부처장) 백문구 △한외과대학 행정실장(부처장) 겸 의학계열실습지원센터 행정실장(부처장) 안희석 ◇국제캠퍼스 △체육대학 행정실장(부처장) 겸 체육부 행정부처장 박남규

◆성공회대 △부총장 겸 기획처장 박윤규 △대학원 교학처장 조남경

◆강원대 △대학원장 차두승 △학생처장 유재춘 △기획처장 김화중 △국제교류본부장 조세연 △정보화본부장 변형기 △서울본부장(대외협력본부장 겸임) 윤학로 △도서관장 이준열 △교수학습개발본부장 소만섭 △기초교육원장 김기석 △교무부처장 성현우 △학생부처장 황향희 △기획부처장 강호민 △산학협력부처장 윤영두 △대학원부처장 안덕근

부음

▲김창수(회사원)·명수(대구방송 영상취재팀 기자)씨 모친상 = 10일 오후 6시 40분, 대구 동산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101호, 발인 12일 오전 8시, 010-5546-4619

▲전준상(연합뉴스 소비자경제부 부장대우)씨 장인상, 이상희(여경사)·상인(홍인 과장)씨 부친상 = 10일 오후, 마산연세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12일 오전, 055-223-1057

▲송병철(대한건설협회 울산시지회장, 울산시직산산업로봇진흥회장, 전 울산경제인협회장)씨 모친상 = 10일, 울산영락원 301호, 발인 12일 오전 8시, 010-3573-1418, 052-256-6896

▲김진수(부산일보 편집국장)·동욱(덕형금속 대표)·충순(운창농산 대표)씨 모친상, 신동태(다도영농조합 대표)씨 장모상,

김지민(사법연수생 45기)·지훈(현대종합상사 대리)씨 조모상 = 10일, 부산의료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010-3570-2304

▲박성진(KCC)·성일(LG MMA 차장)씨 부친상, 권용석(대상원 홍보부장)씨 장인상 = 11일 오전, 원광대학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3일 오전, 063-855-1734

▲김기성(한겨레신문 사회2부 부장)씨 부인상 = 11일 오전 3시 40분, 빈소 성남시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031-752-0404

▲윤승호(광명나비박물관 대표)·명모(개인사업)씨 부친상 = 10일 오전 4시,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2일 오전 6시, 02-2650-2749

▲장중진(세누리당 정책위의장 보좌역)씨 부친상 = 10일 오전, 부산 온정종합병원 장례식장(특2호실), 발인 12일 오전, 051-607-0111

나무와 힐링 박형준의 신비로운 나무의 생애

팔배나무는 낙엽활엽교목으로 붉은 열매는 낙엽이 지면서 황홍색으로 익기 시작한다. 잎 표면은 녹색, 뒷면은 연한 녹색을 띠며 엽병은 약간 붉은 빛이 돈다. 5-6월 피는 꽃은 지름 1cm로 백색이며 6-10개의 꽃이 달린다.

팔배나무는 열매가 무척 작다. 팔배나무는 잎이 넓고 둥글며 봄에 흰 꽃이 핀다. 가을이 되면 팔과 비슷하고 콩알 만한 열매가 붉게 익는다. 우리나라 어디에나 자라고 만주, 일본에도 있다.

일본 사람들은 팔배나무를 '아즈키나시'라 부르는데 아즈키는 팔을 뜻하고 나시는 배나무를 말한다. 한자로는 감당(甘棠), 당리(棠梨), 두리(豆梨), 두(杜)두리(杜梨) 등으로 쓴다. 옥편에는 두의 열매가 감당이라 설명돼 있다. 또 팔배나무에 배나무를 접붙이면 열매가 잘 맺는다는 기록도 있다. 그런데 당리(棠梨)란 표현은 아그배나무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아그배나무는 팔배나무와는 달리 능금나무속에 들어간다. 아그배나무도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붉게 익어서 볼 만하다.

그래서 예전 책에 당리로 쓴 것이 팔배나무인지 아그배나무인지 또는 다른 나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홍리(紅梨), 즉 붉은 배로 말한 것도 위에 말한 것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 아닌가 싶다.

팔배나무 꽃의 화려함을 경탄하는 시 구절도 있다. '바람이 없는데도 바



봄엔 흰 꽃, 가을엔 콩알 만한 열매 '팔배나무'

잎은 찌서 차로 마시고 붉은색 염료로도 사용

들 꽃은 흠뻑려서 하늘을 채우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팔배나무의 꽃은 떨어져 땅에 가득하다.' 하늘에도 한량없이 흰 꽃이요, 땅에도 한량없는 흰 꽃이라는 얘기다. 황홀의 경지가 아닐 수 없다.

본초강목에는 팔배나무 그림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이아(爾雅)에 두(杜)는 곧 감당(甘棠)인데 그중 붉은 것을 두라 하고 흰 것을 당이라 하나 어떤 사람은 열매의 맛이 짧은 것을 두라 하고 단 것을 당이라 하고 또는 암나무를 두라 하고 수나무를 당이라 한다는 몇 가지 설명이 있다. 나무 모양은 배나무와 닮았으나 크기가 작고 앞에는 거치가 발달해 있으며 색은 검푸르며 봄에 흰 꽃이 피고 가을에는 붉은 콩알 만한 열매가 익는데 먹을 만하고 배나무 접목 시 대목으로 쓰면 배나무의 결실을 돕게 된다. 팔배나무의 잎은 다소 쓴맛이 있지만 어린 순은 삶아 소금에 무쳐 먹을 수 있고 때로는 찌서 차 대용으로 마실 수도 있다. 꽃도 먹을 수 있으며 열매는 위장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팔배나무의 잎을 염료로 사용했다. 가을 낱씨가 좋을 때 잎을 따서 건조시켜 붉은색의 염색 재료로 사용했다. 염색 재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이 나무를 심으면 이익이 많고 뽕나무보다 더 좋으므로 많이 심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때 생산량이 많아야 하고 소량으로 심어서는 효과가 적다.

우리나라 산에 큰 팔배나무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산에 새와 짐승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생활공간은 그만큼 더 화려해질 것이다.

전 산림과학원 박사/청림나무병원 대표

기고

바다는 희망과 기회의 터전



방희석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일이 다 되어 가지만 세월호 침몰사고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남은 10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활동이 새찬 물살을 건디며 힘겹게 진행되고 있고, 진상규명과 보상-지원을 둘러싼 정치적 협상은 아직도 결론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과 국민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도 이전상태로 회복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적 정서도, 정치적 갈등도, 경기 침체도 주기적 회복 탄력성에 의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민이 바다를 계속 외면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육당 최남선 선생의 통찰은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육당 선생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조국의 도약을 꿈꾸며 '바다와 조선민족(1955)'이라는 글을 게재해 우리 민족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세계사의 흐름과는 반대로, 조선이 바다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해 쇠락을 경험했고 바다를 전사하면서부터 우리 민족의 웅대한 기상이 실종되고 나라가 가난해졌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바다를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당의 바람과 달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부터의 내륙 중심 사고와 생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산업의 부가치치는 전체 GDP의 6.3%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미래의 성장동력인 해양수산 R&D 투자 역

시 국가 전체 R&D 투자비율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양수산 인력양성 투자도 매우 미진한 상태다. 어촌은 농촌보다 낙후된 시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레저산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미래의 물결(2007)'에서 한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해양산업을 소홀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회 전반적 분위기도 바다가 갖고 있는 호쾌함, 진취성과는 거리가 있다. 정치는 멀리 보며 합의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당리당락에 파묻힌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산업은 미래를 위한 진취적이고 과감한 투자보다는 눈앞의 실적 쟁이에 급급해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인재들이 역동적인 도전 대신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으로만 몰리고 있는

것 역시 우리 사회가 역동성과 활력을 잃어가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당이 지지하는 바와 같이 바다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와 경제,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 관찰 면적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44만km에 달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다. 지리적 위치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아시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도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해상왕 장보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등의 진취적인 해양활동을 되새기고 본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남아 있다.

바다는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정치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호쾌함과 진취성을 스며들게 한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는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를 통해 국가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하고, 오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게 한다. 진취적이며 새로운 것을 꿈꾸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해 줄 것이다.

'어떻게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원하겠느냐?'라는 물음에 '바다를 지키고 서서 활용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바다를 통하여 세계와 소통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한 육당의 해안이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에서도 공표했던 해양을 통해 글로벌 물류를 선도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크나큰 비전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소년에게 그리고 대한 국민에게 말한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바다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찾으라고 말이다.

온라인 와글와글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20대 예비역 사이에서 퍼진다는 소식이 있다. 예비역들의 이 같은 반응에 다른 예비역들도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니 순응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건까지 났다”, “나는 이등병 때 차목을 당해도 후임들한테 잘해주고 선임들이랑 똑같이 안 했다”, “결론은 군대는 끝까지 안 바뀐다. 나 한 명 바뀐다고 해도 안 바뀔 듯”, “군대만 보면 왜 이렇게 찌그러지, 내 동생 보내기 무섭다”, “처벌이 약하니가 이런 일이 반복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의 한 애원권 번식장의 위생 상태가



영양인 모습이 공개됐다. 좁은 철창 속에 어미개 100여 마리가 갇혀 가혹한 학대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저런 건 없애져야 해”, “천벌 받을 인간들, 버려 맛을 인간들”, “동물을 기계 취급하는 번식장 그만했으면”, “마음 아프고 가슴이 턱 막힌다”, “돈에 환장한 번식장 주인, 저 개장에 좀 들어가 봐야 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도 개들은 꼬리를 치고 좋아하니”, “애견샵에서 강아지 사지 않는 게 이런 학대 없애는 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우림 기자 hura@



이투데이 온라인 집게

- ① 노량진수산물시장 냉동창고 발파, 43년 역사 10초만에 무너져
- ② 아이폰6 콘셉트 디자인, 측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장
- ③ LPG 박인비 시즌 2승 입박... 퍼터 바꾸고 일취월장
- ④ 원주수련원 천장 붕괴...강당내부공사, 부실공사 여부 '축각'
- ⑤ 10대그룹 시총 6조2700억원 줄었다... 현대중공업 '급감'

오늘의 EYE

www.baekn.com

연예명사 폐지하니, 상무 병사가...



배극남닷컴은 11일 문화부 기자들의 칼럼을 통해 대중문화계를 꼬집었다. '최두선의 나비효과'는 무단이탈 후 음주, 사건 은폐를 위한 보고 누락, 운전 및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을 언급했다. 지난해 7월 이른바 '연예명사'로 지칭된 국방홍보지원대마저 최근 폐지된 상황에서 심각한 탈선, 일부 상무 병사들의 행태는 군인 신분을 부정한 행동으로 엄히 처벌받아야 할 일이다.

'이꽃들의 36.5°C'는 "명랑" 이순신 대장선의 승리가 빛난 이유"를 강조했다. 사상 최단 기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명랑'으로 인해 '이순신 리더십'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을 배신한 병사들에게 신임을 보내고, 민초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이순신 장군의 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민정의 시스루는 대만 한류의 현주소를 보여줬다. 타이페이의 명동으로 불리는 시먼딩에는 빅뱅, 소녀시대 등 K팝의 열기가 뜨거웠다.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과 '상속자들' 이민호 등 K드라마의 대표 주자가 광고 모델로 내세워져 인기를 증명했다. '오상민의 현장'은 록페스티벌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 2014 준비로 인해 관중석의 4분의 1가량이 폐쇄된 채 진행된 을 시중 K리그 FC 서울과 울산 현대의 경기를 언급했다. 공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조정된 공단과 K리그의 주권을 포기한 FC 서울, 그리고 축구팬을 배려하지 않은 현대카드가 빚어낸 참극이다. '홍색별의 별별예기는' '연기, 취소로 몸살 앓는 음악 페스티벌, 성장통은 끝났다'를 게재했다. 지난 월드컵 록페스티벌 등을 비롯한 음악 페스티벌이 이제는 외형보다 내실을 다질 때라고 강조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이 편안한 산야로 트레킹화!

산야로 트레킹화는 우리 발에 맞는 라스트를 사용해 착화감이 편안합니다. / 관절보호 오소케어 향균 인솔 사용으로 발 냄새를 억제합니다.



₩22,000

등산, 자전거, 캠핑 등 아웃도어 장갑!!
산야로 아웃도어 장갑!

SANYARO GLOVE TECHNOLOGY

- ◎ 2014년 개발된 NEWSPAN 소재를 사용, 신축성 및 통풍성 우수
- ◎ 실리콘 GEL(특허)을 삽입, 충격을 흡수 및 눈슬림 기능을 추가
- ◎ 인체공학적인 3D 입체 패턴은 완벽한 피팅감을 제공
- ◎ TPR 반도는 입체적인 부분 강조, 엄지부분에 TERRY원단 사용



SM2434
₩78,000

SU2435
₩78,000

JANDIRO GOLF

www.jandiro.com | 제품문의: 02)6909-8834 | 목동점: 02)2608-7400 분당점: 031)715-9933 인덕원점: 031)422-8688 광주점: 062)351-9000 전주점: 063)276-5000

正論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빈자의 성인’, ‘제2의 예수’로 불리는 성인 ‘프란치스코 (1182~1226)’의 이름을 교황명으로 택한 최초의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수세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된 가톨릭교회의 혁신운동을 접화시킨 인물이다. 그렇기에 ‘프란치스코’는 역대 교황들이 택하기에 버거운 이름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 선택은 ‘프란치스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가톨릭계에서는 이를 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사명의식을 교황 선출시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식 미사 집전, 세월호참사 유족과 성노예 피해자 위로, 장애인 요양 시설 방문,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 등 광폭의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그의 방한 활동은 화해와 평화, 소외되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난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친구로 평범함 속으로 몸을 낮추며 실천을 통해 혼탁한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려는 모습을 이 땅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위대함은 낮은 곳으로 임하려는 자세 속에서 강렬하게 발현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시절 그는 전철을 타고 다니며 늘 빈민들과 함께하고, 작은 원룸에서 살며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아르헨티나가 독재정권 밑에서 신음하던 시절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으며 군부에 쫓기는 사람들을 숨겨 주었다.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그가 손에 든 것은 총도 해



김창남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정치학

방신학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복음만으로 험난한 현실을 뚫고 나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겹옷을 벗고 거리로 나가라”라고 말한다. 거리로 나가 보통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교황의 관저 대신 여행자 숙소에 머물며 다른 신부들과 식사를 한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명품 구두와 십자가 대신 옛날부터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쓰며, 낡고 찢은 옷을 입고 다닌다. 전용 리무진 대신 걷거나 작은 차를 타고 보통 사람들과 친교하기를 즐긴다. 그는 성대한 환영식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에게서 지엄한 교황의 권위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혁신과 공동선을 강조한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결점을 바로 잡기 위해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현대사회의 소비주의에서 비롯된 낭비도 비판한다. “음식을

버리는 것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는 사제와 주교와 교황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세속적 교황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인 빈한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세상에 자기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구름 같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주어진 인연을 깨닫고 정성을 다하여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 것을 권한다. 자기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눈물겹도록 고맙고 이 세상은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교황은 트위터로 통해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교황의 트위터 팔로어는 1400만명을 넘었다. 그는 지금 전 세계의 여러 지도자 중 트윗이 가장 많이 리트윗 되는 지도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이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고 있다.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공간을 사랑과 겸손과 무소유 정신으로 채워 혼탁한 세상에 빛이 되고 있다. 세상의 어두움에는 치열하게 맞서며 정의와 인권의 길을 여는 등불이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탁월한 현실적 지도자이기도 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미래를 향해 용기와 희망을 충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객석

착하지 않은 ‘비영리’ 이야기



손영주
아름다운재단
모금팀 간사

나는 세일즈를 하다가 비영리단체인 아름다운재단으로 옮긴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아름다운재단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남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하니 다 순하고 착하게 보이니 보다.

처음에는 나 역시 비영리 영역을 막연하게 봉사활동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서 경험해보니 달랐다. 짧게나마 영리와 비영리를 모두 겪은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실제로 이 분야에는 종교적 믿음이나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갖고 일하는 ‘착한’ 분들이 매우 많다. 물론 비영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비영리에서는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내 일과 내 일을 구분하기보다는 ‘좋은 일인데 뭐’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하게 된다.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한다고 해서 그저 좋은 일들의 연속만은 아니다. 비영리는 착하게 일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부자와 수혜자의 욕구를 실현하는 곳이다. 비영리단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위해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그 돈을 통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부하는 사람들은 대가 없이 자신의 돈을 내놓고, 기부금을 모으는 사람들은 보너스가 나오 있는 것도 아닌데 늦게까지 일한다. 또 그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감시하는 사람들, 기부금을 통해 지원을 받은 뒤 다시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한쪽도 어긋나지 않고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비영리의 구조다.

좋은 일을 그저 착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나눔’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모금 캠페인과 지원사업, 사회적 변화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기한 ‘비영리의 전문성’이다.

기자의 눈

이제 과자도 직구해야 하나



이선애
산업부/lsa@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직접 구매쇼핑)’ 열풍이 거세다. 이유는 단순하다.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주로 의류나 가방 등 패션 아이템이 주를 이뤘던 해외 직구 품목이 과자로까지 확대되는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제과업체들이 국내용 제품과 수출용 제품 간의 가격, 용량, 성분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의 가격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해태제과의 맛동산은 미국에서 2048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한국은 50% 이상 비싼 3800원을 줘야 사 먹을 수 있다. 또 같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수도 약 3배까지 차이가 난

다. 1만원의 돈이면 미국에서는 고래반, 맛동산, 초코파이 등 11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4개 제품밖에 구입할 수 없다. 식품업체는 이에 대해 현지 유통업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변명하고 있다.

성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롯데제과의 ‘아몬드초콜릿’은 일본의 같은 제품과 가격이 2000원으로 같았지만, 일본 제품은 24개가 들어 있었고 한국 제품에는 고작 12개. 게다가 일본제품에 쓰이는 ‘카카오버터’가 국내 제품에는 ‘식물성유지’로 대체돼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에 국내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국내 제과업체들은 작년 말부터 원재료 값 상승을 근거로 제품 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제과업체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 초라한 성적표를 받기 전에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차상엽의 시선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필요한 것

네덜란드 출신의 베르트 판 마르바이크 감독이 홍명보 전 감독의 후임으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기술위원장과 실무팀은 일주일 전 네덜란드 현지로 급파돼 판 마르바이크 감독에게 한국대표팀 감독직을 제안했고 그는 일주일간의 심사숙고할 시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고 조만간 차기 대표팀 감독이 확정될 전망이다. 판 마르바이크 감독은 메이저대회 16강 이상, 충분한 클럽팀 감독 경험, 영어 의사소통 등 협회가 마련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이다.

현 상황에서 축구협회가 내건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들 중 판 마르바이크 감독은 최상의 선택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맡았던 함부르크 SV에서 시즌 도중 부임해 성적부진으로 시즌을 다 마치지 못한 채 경질됐고 네덜란드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한 유로 2012에서 3패만을 기록하고 탈락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는 네덜란드를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전력도 있다.

여차피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추천된 후보군에서 선택한 것인 만큼 더 이상 자질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용수 위원장이 면담 후 심사숙고할 시간을 준 것은 협상 과정에서 판 마르바이크 감독의 인성에도 합격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자는 이전수가 페예노르트 로테르담에서 활약하던 2007-08 시즌 페예노르트의 경기 대부분을 현장에서 취재하며 판 마르바이크 감독과 자주 대면했다.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가 바깥에서의 평가에 관계없이 자신이 선택한 선수들에게 꾸준한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 준다는 점이었다. 현 네덜란드 대표인 조르디니오 바이날둠, 리로이 페어 등은 그를 통해 중용됐거나 그를 통해 프로 선수로 데뷔한 선수들이다.



당시 이들은 모두 10대 선수들이었고 안팎에서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결국 대표선수로까지 성장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이후 부진을 겪던 터키의 누리 사힌 역시 그가 페예노르트에 임대로 불러들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재도약할 수 있었다. 모든 감독이 장단점을 가지며 마련이지만 적어도 재능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장시키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배대량들을 적절하게 중용한다는 점 역시 강점이다.

다시 한국 대표팀으로 돌아와보자.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따라붙을 정도로 부담이 큰 자리다. 현 상황에서 과감하게 이 자리를 맡을 국내 감독은 없다. 하지만 외국인 감독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자리다. 아시아 최강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유럽과도 다수 포진해 있어 유럽 출신 감독이라면 선수들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홍명보 감독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노렸던 계획은 일단 실패했다. 이제 새로운 감독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대표팀을 재건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의 공감대도 형성됐다. 어느 누가 감독으로 부담한다 해도 반드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제는 조금증보다 검증된 감독이 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팬과 언론이 믿고 기다려야 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차장 sycha@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혁

논설실 (02)799-2657

정치경제부 (02)799-2655

산업부 (02)799-2664

문화부 (02)799-2669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시각부 (02)799-2658

미래산업부 (02)799-2663

국제경제부 (02)799-2650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ww.hainaim.com 해냄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1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전가요?”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칼끝을 건듯 살아온 인생, 끝내 살아내리라!

왕비에서 평민으로, 날품팔이꾼, 걸인, 바구니까지
피와 탐욕으로 점철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낸 은애(恩愛)의 기억
단종 비 정순왕후가 고백하는 두 해 남짓의 사랑, 예순다섯 해 그리움

“김별아가 썼다. 이제 내 차례다. 낭독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이라는 이름으로
활자와 배우가 만나는 시간. 이 떨림은 무엇일까?”
—연극인 박정자

그녀의 존재를 말하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한다. 세상이 외면했던 65년의 고독을 말하면, 경악한다. 그녀가 옮겨잡았던 운기, 이름 모를 여인들의 거친 손을 말하면
눈물짓는다. 삶은 수다란 이유와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유이자 목적임을, 나 또한 그녀를 쓰고 나서야 알았다. 알다가 있고. —기자의 말, 중에서

김별아
장편소설

영영이별 영이별

한 줄의 기록에서 시작된 끝없는 상상력
김별아 장편소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사랑
김별아 에세이

사륙판 | 양장본 | 272쪽 | 13,800원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설계 기술력 - **뱅**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ANG Longdistance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10번 아이언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친다.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극초고반발 + 큰 헤드 체적으로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M.O.I가 높고 Sweet Spot이 넓어서 방향성이 더 향상되었다.
- 충 중량과 헤드밸런스가 더 가벼워져서 스윙이 편하다.
- F1 포물러 타이어 접지 원리와 같이 백스핀량이 증가한다.
- 헤드의 와이드 솔 디자인으로 인하여 뒤땅이 없다.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뱅 Longdistance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WOOD · Hybrid IRON)

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신세계 백화점 본 점 (02-310-1538)
의정부 (031-8082-0712)강남점 (02-3479-1532)
부산점 (051-745-1823)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영등포점 (02-2639-1536)
충청점 (041-640-5753)경기점 (031-695-1845)
마산점 (055-240-1406)주의 - **BIG BANG**
GOLF JAPAN인천점 (032-430-1563)
광주점 (062-360-1402)

반포 골프백화점 (02-534-0220)

·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8조4000억 ‘유통노다지’ 캔다

Cover Story

대한민국은 ‘아웃렛 공화국’

신세계 2007년 여주점 개점 국내 첫 도입
롯데 2010년 최대 면적 오픈, 단숨에 매출 1위
현대백화점 아울렛 사업 합류... 경쟁 치열
프리미엄급 제품 합리적 가격 소비자 만족
포화상태 백화점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던진 승부수는 적중했다. 바로 ‘아웃렛’이다. 쪼그라들고 있는 본업과 달리 성장세가 날다르다.

백화점 1위 롯데의 아울렛은 2008년 330억원이었던 매출이 5년 만에 1조원을 가볍게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1%나 증가했다. 6년 만에 50여배가 증가한 셈이다. 점포수도 광주 월드컵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3개를 늘려 벌써 10개가 됐다. 올해에도 경기 고양, 구리, 광명에 추가 출점하고 매년 1-2개씩 늘려갈 계획이다. 2007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개점으로 프리미엄 아울렛 시대를 열었던 신세계는 2011년 ‘과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했고, 2020년까지 6개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10%를 돌파했던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2012년 5.5%로 반토막 났고, 지난해에는 2.9%까지 둔화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믿었던 명품 부문마저 매출이 줄어들며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빅3’는 1996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신규 출점을 하지 않았다.

업계는 국내 아울렛 시장 규모를 약 8조4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이 벌이는 교외형 아울렛 시장은 약 1조5000억~1조6000억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약 7조원은 도심형 아울렛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 아울렛은 이랜드리테일이나, 마리오(마리오아울렛), 원신월드(W몰) 등 패션 중견기업들이 이끌어 오던 시장이다. 이 시장에 주요 백화점들이 2008년부터 진입해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다.

백화점들이 아울렛 출점에 목을 매는 이유는 백화점 시장의 포화 상태가 계속되고 정부 규제로 인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이 가로막히면서 시작됐다. 기존 사업 분야의 성장에 한계가 온 반면, 아울렛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아울렛 부지나 면적을 두고 끊임없이 경쟁을 벌인다. 지난해 말 롯데백화점은 경기도 이천에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열었다. 아시아 최대 영암면적, 아시아 최대 브랜드를 자랑하면서 영업 두 달 만에 단일 매장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아울렛 시장을 뒤흔들었다.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을 롯데보다 먼저 시작한 신세계는 자존심이 상했다. 이천 아울렛이 개장도 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근거리에 있는 ‘여주 프리미엄 아

울렛’을 아시아 최대 규모로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교외형 아울렛 원조인 만큼 면적이나 취급하는 브랜드 수준차도 롯데에 지기 싫다는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다.

지난 7월 3일 롯데는 또 한 번의 중대 발표를 했다. 이날 롯데쇼핑은 3000억 원을 들여 2016년까지 양주시에 대규모 교외형 아울렛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신세계가 의정부시와 2017년까지 1100억원 규모의 교외형 아울렛 매장을 건립하는 투자유치의향서(LOI)를 체결한 지 넉달 만이었다. 하지만 롯데는 즉각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신세계는 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 북부지역 아울렛의 주도권을 선점했다고 자신했던 신세계는 20일이 지나서야 의정부 시장을 미국으로 불러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에 아울렛 매장을 짓는 내용의 업무협력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아울렛 전쟁은 부산과 인천, 수원 등 지방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현대백화점의 아울렛 사업 가세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출점이 많아지고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문제로 함께 커질 수 있다. 대형마트가 앞다퉈 출점경쟁을 벌이자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고사될 것처럼 아울렛 주변 패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아울렛 사업 진출을 규제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렛이 들어선 뒤 중심상권이 무너지고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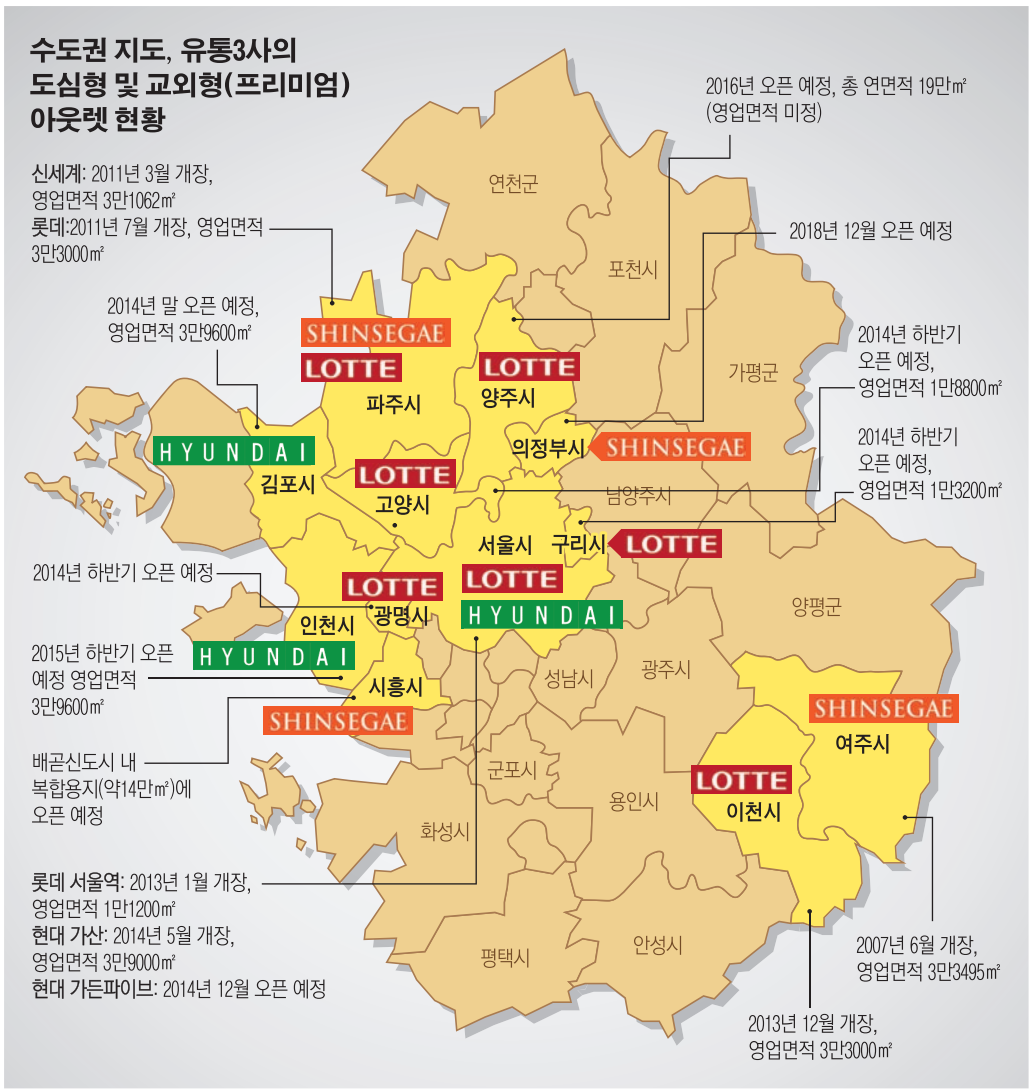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아울렛을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최근 지역상인들과의 상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상생에 노력하면서 대형마트가 걸어왔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커버스토리 20·21면



수도권 교통·유통 요충지마다 아웃렛 깃발꽃기 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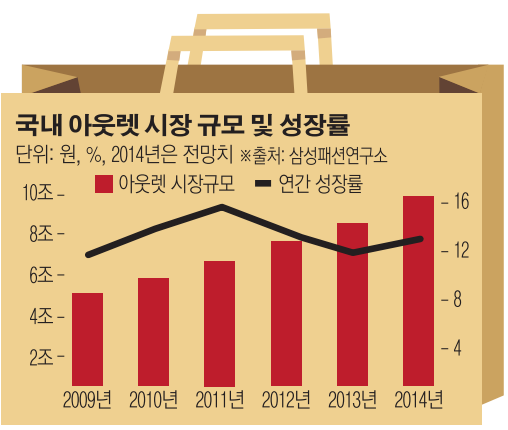


주요 백화점 아웃렛 영토 확장 대격돌

프리미엄(교외형) 아웃렛 전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아웃렛은 크게 도심형과 교외형으로 나뉜다. 국내 유통업체의 맞수 신세계와 롯데가 프리미엄 아웃렛 시장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이 가세하면서 국내 유통업체 '빅3'의 치열한 대격돌이 예상된다.

롯데 올 3개 신규출점...매출 2조 도전
신세계 여주점 확장... 2020년 8개로
양주·의정부 등 경기북부서 힘겨루기

뒤늦게 가세 현대백, 한섬 시너지 기대
김포·인천 송도점 오픈 본격적인 확장



◇롯데·신세계·현대 '3각편대' 재편 = 국내 프리미엄 아웃렛 시장은 롯데와 신세계가 이끌고 있다. 아웃렛 사업을 가장 공격적으로 펼치는 곳은 롯데쇼핑이다. 2008년 10월 '광주 월드캡점'을 시작으로 이 사업에 뛰어든 롯데는 작년 약 1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매년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올해 3개 안팎의 아웃렛을 출점할 예정으로, 매출액 2조원에 도전한다.

사이먼프로퍼티그룹과 합작해 2007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시작으로 교외형 아울렛 시장에 뛰어든 신세계는 2020년까지 총 8개의 아울렛을 운영할 방침이다. 여주점은 확장 공사를 진행, 연말에 새로운 모습을 갖췄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5월 서울 가산동에 아울렛 1호점인 '현대아울렛 가산점'을 오픈하면서 뒤늦게 시장에 뛰어 들었다. 가산점은 도심형 아울렛이다. 지하 1층, 지상 9층에 총 영업면적 3만9000㎡ 규모로 국내 도심형 아울렛 가운데 가장 크다. 연말에는 한강 아래배길 김포터미널에 첫 프리미엄 아울렛도 오픈한다. 내년에는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점포 확장에 나선다. 연면적 11만8800㎡에 영업면적만 3만9600㎡에 달하는 대규모 아울렛이다. 2015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이르면 내년 착공한다.

등 양주신도시를 포함하는 양주는 수도권의 차세대 대형 상권으로 평가 받는다. 신세계 역시 의정부에 신규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한다. 신세계 의정부점의 예정지는 롯데 양주점과 불과 10km가량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는 경기 동부(이천·여주)와 경기 서북부(파주, 부산(김해·거창)에 이어 이제 경기 북부서 4차 대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3일 경기도 양주시와 '양주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2016년 남양주 양주역 일대에 들어서는 양주점은 공사비 3000억원이 투입되고 연면적은 19만㎡에 달한다. 앞서 문을 연 이천점(18만4000㎡)이나 현대의 김포점(16만5000㎡)보다도 큰 국내 최대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3월 11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의정부 프리미엄 아울렛'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의향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다.

롯데는 양주점이 신세계 의정부점보다 서울에서 직선거리가 다소 멀지만 교통 접근성과 유통인구에서 월등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양주는 의정부와 동두천을 잇는 3번 국도와 국철 1호선이 지나가고 버스노선도 36개에 달하는 대중교통의 요충지다.

www.dongshin.co.kr

좋은 원두, 좋은 커피

세상에서 가장 쿨한카페 KANU

카누 아이스아메리카노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공원은 카페다

KANU × 소리바다

유희열의 플레이리스트로 여름커피를 즐겨보세요

www.dongshin.co.kr

좋은 원두, 좋은 커피

세상에서 가장 쿨한카페 KANU

카누 아이스아메리카노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공원은 카페다

KANU × 소리바다

유희열의 플레이리스트로 여름커피를 즐겨보세요

서울 서남부 가산디지털단지 도심형아웃렛 빅3 주요 현황

	마리오아울렛	W몰	현대 가산점
개점시기	2001년	2007년	2014년 5월(하이힐아울렛은 2013년)
영업면적	13만2000㎡(1, 2, 3관 합산)	1만9967㎡	3만9000㎡
입점 브랜드	600여개	300여개	230여개
2013년 매출	1748억원	2120억원	하이힐아울렛 매출 830억원(추정)

'아웃렛 단지'에 현대 합류 경쟁 가속화

‘도심형’ 서울 서남부권 지각변동
마리오, 1관 증축하고 1~3관 모두 연결
W몰, 콘텐츠 승부...입점 브랜드 300개

아웃렛이 입점해 있고 아이디어팩토리아울렛도 자리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마리오아울렛, 원신월드(W몰) 등 패션 중견기업들이 이끌어 오던 도심형 아울렛 시장에 유통 대기업들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시장 규모에 기인한다. 국내 아울렛 시장 규모는 약 8조 4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 중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이 벌이는 교외형 아울렛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1조6000억원. 나머지 약 7조원은 도심형 아울렛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가장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은 롯데쇼핑. 지난 2008년 광주 월드캡점을 시작으로 도심형 아울렛 사업을 펼친 롯데는 대구 율하점, 충북 청주점, 서울 서울역점 등 총 5개 점포를 운영하며, 작년엔 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고양터미널점과 광명점, 구리점 등 3곳을 잇따라 내 도심형 아울렛에서만 9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2018년에는 대전에 서울역점 두 배 크기의 초대형 도심형 아울렛을 오픈할 예정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도심형 아울렛 시장의 사업 성장성이 높다”면서 “교외형을 비롯해 도심형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연내 서울 송파구 가든파인에 두 번째 도심형 아울렛을 개장해 사업 확대에 주력한다. 회사 측은 “가든파인비와 1km 떨어진 위례신도시 입주 가시작돼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마리오아울렛은 기존 1관을 증축하고 1·2·3관을 모두 연결하는 리뉴얼을 단행하면서 맞서고 있다. 영업면적은 13만2000㎡(약 4만평)로 늘어났다. W몰은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웠다. W몰의 입점 브랜드 수는 300개가량이다. ‘백화점형 프리미엄 패션아울렛’을 표방하는 W몰에는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나이키 팩토리아

이선에 기자 isa@

이선에 기자 isa@



신세계·롯데·현대 '백화점 빅3'
아웃렛 삼국지

3사3색 마케팅 전략

현대백화점까지 가세한 아웃렛 삼국지는 전쟁을 방불케할 정도로 치열하다.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지역별로 대단위 매장을 내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할인율을 높이거나 지속적인 이벤트를 펼치는 등 사활을 건 마케팅전을 펼치고 있다.

롯데는 이색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관광청의 품질인증을 받는 등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신세계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정통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본질을 내세우고 있다. 브랜드 본사와 직접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할인율을 적용, 1년 내내 25~65% 할인된 상품을 판매한다. 후발 주자인 현대는 매장 확장에 주안점을 두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아울렛 및 복합 쇼핑몰 진출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윤철규 기자 yoonck@

이동거리 1시간이 아깝지 않은 '착한 가격'

SHINSEGAE · SIMON

여주·의정부·시흥 등 수도권 출점
임대 수수료 낮춰 세일폭 더 확대

신세계사이먼이 전국 주요 도시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울렛을 지속적으로 출점 중이다. 이를 통해 관광 쇼핑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내년 초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확장 오픈을 준비 중이며, 현재 경기도 시흥 지역과 의정부 지역에서 수도권 3, 4호점을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신규 출점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가치 소비 트렌드 확산과 맞물려 프리미엄 아울렛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주요 광역도시 신규 출점 및 꾸준한 규모 확장을 통해 유통업계를 선도하려는 취지다.

신세계사이먼은 양질의 이월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1시간 남짓 이동거리에도 고객들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하는 목적에 착안한 전략이다.



신세계사이먼이 지난 2007년 개점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사진제공 신세계사이먼

신세계사이먼은 도심에서 떨어진 이국적인 건축 컨셉으로 개발된 공간에 입점 브랜드들이 이월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외에 매장이 있어 임대 수수료가 낮은 덕분에 입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상품을 제공한다.

신세계사이먼은 입점 브랜드가 보다 효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최소 할인율 적용'이다. 신세계사이먼은 정통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본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브랜드 본사와 직접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할인율을 적용, 1년 내내 25~65% 저렴한 상품을 판매한다. 더불어 고객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세계사이먼은 신세계와 미국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이다. 부동산개발 회사이자 세계 최대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 기업인 사이먼의 개발 노하우에 신세계의 마케팅 능력이 더해져 주목받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ly@

볼거리·품질로 고객 발길 사로잡아

LOTTE OUTLETS

SNS 경품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중국관광청 인증...국내외 신뢰도 높아

롯데백화점의 아울렛 운영 전략은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은 물론 신뢰받는 쇼핑몰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2013년 말 현재 총 10개의 아울렛을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에 고양터미널점, 광명점, 구리점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오는 2016년엔 경기도 양주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마련할 방침이다.

롯데아울렛의 콘셉트는 '재미'와 '안전'으로 함축할 수 있다. 국내 유통업체들 간 아울렛 시장 선점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색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차별점으로 내세운 것.

일례로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은 지난달 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일반 고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페인팅쇼를 진행했다. 롯데아울렛은 이 행사를 보드페인팅쇼의 모델과 함께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경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전경.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고객 참여도를 높였다.

롯데아울렛은 지난해 말 점포 운영 전략 키워드를 'BLUE(Beautiful, Luxury, Unique, Exciting)'로 정하고 건물 외벽에 겨울과 어울리는 장식물 설치, 볼거리와 함께 재미를 선사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중국관광청(CNTA)의 품질인증을 받아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품질에 민감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증은 국내는 물론 해외 고객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CNTA 인증을 받은 점포는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이전점이다. 특히 파주점과 이전점은 국내 교외형 아울렛으로는 처음 CNTA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도심형·교외형·복합몰 등 매장 확장

HYUNDAI DEPARTMENT STORE

'하이힐' '가든파이버' 위탁경영 나서
내년 판교에 수도권 최대규모 쇼핑몰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유통시장 후발주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 도시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신규 출점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아울렛에 출점한 현대백화점은 현재 도심형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016년까지 총 6개의 아울렛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심형 아울렛으로 문을 연 현대백화점은 위탁경영 방식을 선택했다. 자가 소유 부동산개발이 아닌 위탁경영 방식은 아울렛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 입장에서 출점시기를 앞당기는 해법이 됐다. 현대백화점 아울렛 1호점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하이힐아울렛이 대표적이다. 연내 출점이 예정된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버도 위탁경영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올해와 내년 말에 각각 김포, 송도에 들어선다. 특히 송도 프리미엄 아울



연내 개점 예정인 현대백화점의 첫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렛은 입지가 좋다. 국제기구와 교육시설, 다양한 기업이 입주, 상권도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최근 영종도 개발 등으로 외국인 유입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인근에 경쟁 점포가 없고 접근성이 우수한 만큼 연간 3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지하 7층, 지상 13층 규모, 수도권 최대의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쇼핑몰을 건설 중이다. 현재 이 상권은 판교·분당을 포함한 성남시와 용인시 인구 약 200만명이 밀집해 있으며 AK분당점, 롯데 분당점, 신세계 경기점 등 3개 백화점이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소화와 전쟁
세상에 없던 여자의 전쟁이 시작된다!

한집에 사는 시누이의 형도에 속이 끓는다! | 최영원
시아머니의 생트집에 속이 뒤집힌다! | 이시은
친구의 알마운 자랑에 위장이 떨린다! | 손유경

신경질나서 소화나 되겠어?

신경쓰면 위운동이 안되고 위운동이 안되면 소화가 안됩니다
소화안되는 요즘시대에 베나치오!
약국에서 베나치오를 찾으세요~

인터넷에서 **소화와 전쟁** ♪ 을 검색하세요!

간편한~ 20mL
속 편한~
소화안되는 요즘시대엔 베나치오
•무탄산 저자극
•식물성 소화제
•위운동 촉진효과

75mL도 있어요!

광고심의필 / 1260-1603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먹다 남은 약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안전하게 수거해드립니다.

에볼라·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에 백신株 강세

〈진원생명과학〉

〈대한뉴팜〉

베스트&워스트

8월 4~8일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와 미국의 이라크 공습 승인 소식에 2% 넘게 빠졌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첫째(8월4일~8일)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2포인트(2.03%) 내린 2031.10으로 마감했다. 기관이 7298억원 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690억원, 8348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전주 대비 3.15포인트(0.58%) 오른 544.24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중순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대형주에 비해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며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외 악재가 부각된 지난주에는 코스피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개인이 1857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547억원, 외국인은 1177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진원생명과학, 40% 상승…美 에볼라 최고단계=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진원생명과학의 주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진원생명과학은 지난주 내내 상승세를 보이며 40.17% 상승했다. 이 기간 주가는 1195원에서 1675원까지 올랐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가 에볼라 대응태세를 최고단계인 레벨 1로 격상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가 대응태세를 최고 단계인 레벨 1로 격상한 것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발생 이후 처음이다.

흥아해운도 지난주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며 33.70% 올라 상승률 2위를 보였다. 주가도 1350원에서 1805원으로 치솟았다.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정호 NH농협증권 연

정할 예정이다. 본 입찰에는 인수의향을 밝힌 국내 투자펀드 한샘컴퍼니와 에스케이 베리타스자산운용, 미국계 펀드 베인캐피탈 등 3곳 이외에도 1~2개의 투자가 더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동성제약(17.77%), 엔케이(17.21%), 신라교역(16.24%), 휘닉스홀딩스(16.23%), 삼성출판사(15.93%) 등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디올메디바이오, 지난주 내내 하락…41% 하락=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종목은 디올메디바이오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하락률은 39.82%로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이 기간 주가는 2185원에서 1315원으로 떨어졌다.

이필름은 22.92% 주가가 빠지며 유가증권시장 2위를 기록했다.

‘흥아해운’ 운임비·물량 등 실적회복 전망 33%↑

‘디올메디바이오’ ‘이필름’ 지난주 내내 하락세

회생절차 ‘범양건영’ 유증 결정에 19% 떨어져

구원은 “동남아시아 경로 위주의 해운사로 매출의 84%를 차지하는 컨테이너선 운임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선박 운영비용은 감소하고 있다”며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지난주 상승률 3위에는 엠케이트렌드가 이름을 올렸다. 엠케이트렌드는 1만750원에서 1만3400원까지 올라 24.65% 상승률을 기록했다. 엠케이트렌드는 NBA의 중국 내 성공에 따른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 달리를 펼쳤다.

지난 2011년 국내에 런칭한 NBA는 이미 국내에서는 모자 아이템의 인기로 1분기 실적을 견인한 바 있다. 올해 5월 말에는 NBA의 중국 매장을 오픈하고 올해 중 20개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경방과 동부하이텍도 각각 23.39%, 17.89% 상승했다. 동부하이텍은 매각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다. 동부그룹과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다음달 분임질을 거쳐 동부하이텍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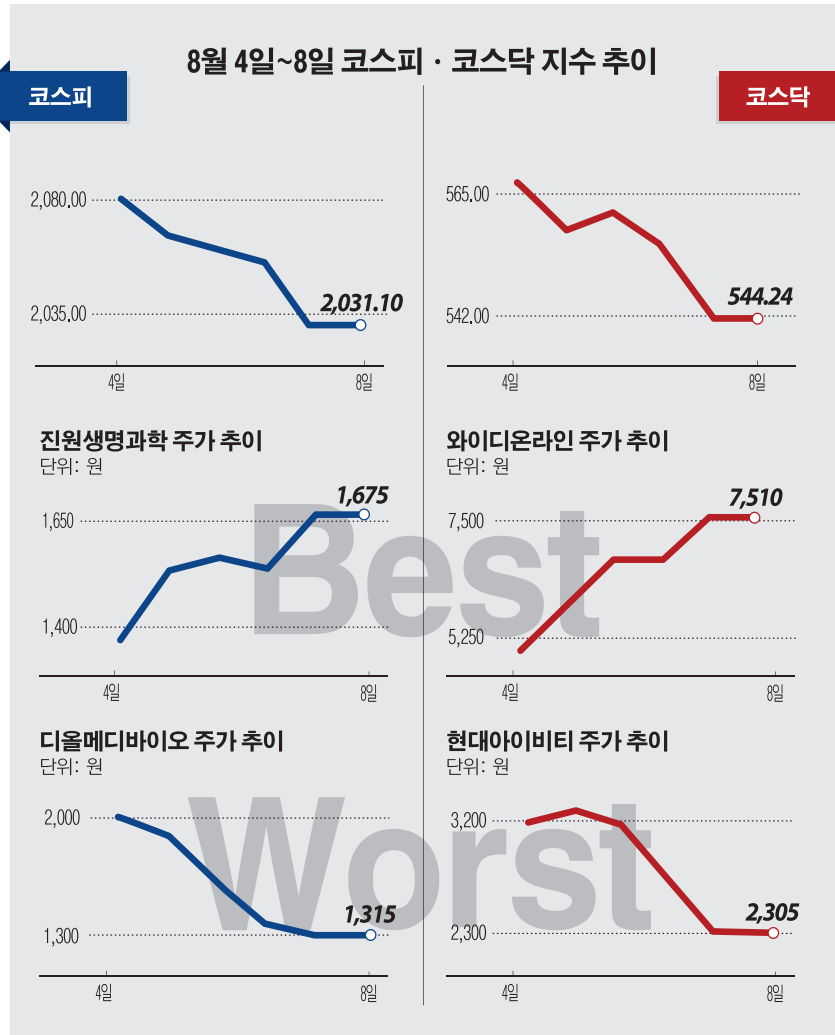
이필름은 휴대폰 단말기부품 제조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난주 BW 추가 상장에 따른 물량 출회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범양건영은 19.25% 떨어지며 하락률 3위를 기록했다. 주가는 2만6500원에서 2만1400원으로 떨어졌다.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5일 범양건영은 보통주 4만1420주를 새로 발행해 제3차매장 증자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안에 의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발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에스인스트루도 17.78% 하락했다. 주가는 4135원에서 3400원으로 하락했다. 이 밖에 태평양물산은 17.38% 하락했으며 한진해운홀딩스(-17.02%), 근화제약(-16.44%), 코오롱글로벌(-16.13%), 이건산업(-14.76%) 등도 동반 하락했다.

이미정 기자 lmj@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8월 4일 종가	8월 5일 종가(원)	8월 6일 종가(원)	8월 7일 종가(원)	8월 8일 종가(원)	주가등락률 (%)
진원생명과학	95	1,195	1,350	1,805	1,675	40.17
흥아해운	153	1,350	1,805	1,805	1,805	33.70
엠케이트렌드	161	10,750	13,400	13,400	13,400	24.65
경방	419	124,000	153,000	153,000	153,000	23.39
동부하이텍	218	4,165	4,910	4,910	4,910	17.89
동성제약	93	3,630	4,275	4,275	4,275	17.77
엔케이	167	3,370	3,950	3,950	3,950	17.21
신라교역	475	25,550	29,700	29,700	29,700	16.24
휘닉스홀딩스	55	3,975	4,620	4,620	4,620	16.23
삼성출판사	97	8,350	9,680	9,680	9,680	15.93

코스피 하락 9종목

종목명	8월 4일 종가	8월 5일 종가(원)	8월 6일 종가(원)	8월 7일 종가(원)	8월 8일 종가(원)	주가등락률 (%)
이건산업	108	13,550	11,550	11,550	11,550	-14.76
코오롱글로벌	136	9,880	8,270	8,270	8,270	-16.13
근화제약	92	22,500	18,800	18,800	18,800	-16.44
한진해운홀딩스	127	11,750	9,750	9,750	9,750	-17.02
태평양물산	210	6,560	5,420	5,420	5,420	-17.38
지에스인스트루	40	4,135	3,400	3,400	3,400	-17.78
범양건영	56	26,500	21,400	21,400	21,400	-19.25
이필름	42	1,680	1,295	1,295	1,295	-22.92
디올메디바이오	33	2,185	1,315	1,315	1,315	-39.82

※자료 : 에프앤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8월 4일 종가	8월 5일 종가(원)	8월 6일 종가(원)	8월 7일 종가(원)	8월 8일 종가(원)	주가등락률 (%)
와이드온라인	165	4,675	7,510	7,510	7,510	60.64
네이플	42	5,580	8,700	8,700	8,700	55.91
대한뉴팜	219	11,000	15,250	15,250	15,250	38.64
컴투스	1,297	95,000	128,600	128,600	128,600	35.37
포비스타엔씨	110	2,110	2,815	2,815	2,815	33.41
한빛소프트	84	2,750	3,625	3,625	3,625	31.82
디지털조선	117	2,450	3,150	3,150	3,150	28.57
시공테크	104	4,080	5,200	5,200	5,200	27.45
네오위즈인터넷	168	9,770	12,450	12,450	12,450	27.43
일신바이오	59	1,065	1,345	1,345	1,345	26.29

코스닥 하락 9종목

종목명	8월 4일 종가	8월 5일 종가(원)	8월 6일 종가(원)	8월 7일 종가(원)	8월 8일 종가(원)	주가등락률 (%)
모다정보통신	49	5,930	5,000	5,000	5,000	-15.68
창해에탄올	81	15,600	13,050	13,050	13,050	-16.35
PN풍년	40	4,775	3,980	3,980	3,980	-16.65
덕신하우징	140	20,950	17,450	17,450	17,450	-16.71
성우전자	57	4,730	3,905	3,905	3,905	-17.44
위닉스	171	16,150	13,300	13,300	13,300	-17.65
한국팩키지	26	1,290	1,055	1,055	1,055	-18.22
삼보	136	11,600	9,420	9,420	9,420	-18.79
현대아이비티	69	3,205	2,305	2,305	2,305	-28.08

※자료 : 에프앤가이드

◇와이드온라인, 모바일 게임 기대감 상승…60% 상승=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게임주인 와이드온라인으로 한 주 간 무려 60.64%나 상승했다. 주가는 4675원에서 7510원까지 치솟았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와이드온라인은 지난 5월 모바일 게임 ‘드래곤을 만나다 for 카카오톡’ 출시했다. ‘드래곤을 만나다’는 캐주얼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스노우팍이 개발하고 와이드온라인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와이드온라인은 지난달 15일 헬덴컴퍼니와 모바일 게임 ‘천만의 용병’에 대한 대만·홍콩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마카오 등 5개 지역에 천만의 용병을 서비스한다.

네이플은 55.91% 올라 상승률 2위를 보

냈다. 주가 역시 5580원에서 8700원으로 치솟았다.

대한뉴팜은 38.64%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대한뉴팜은 구제역이 경남 합천 지역으로 확산됐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난 6일 경남 합천군의 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은 뒤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 확진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러 커뮤티스가 35.37% 오르며 상승률 4위를 기록했다. 포비스타엔씨 33.41% 상승하며 5위에 자리했다. 컴투스는 지난 2분기 깜짝 실적(예상치)을 웃도는 실적) 발표에 급등세를 보였다.

성중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컴투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1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4%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430억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성 연구원은 “‘뉴스의 신이 글로벌 빅히트를 기록한데 따른 것’이라며 “특히 지난 6월 서머너즈위의 글로벌 론칭 후 메가톤급 히트를 시현하면서 3

‘와이드온라인’ 新모바일 게임 기대감에 60% 급등
28% 급락 ‘현대아이비티’ 오늘까지 조회공시 답변
마른 장마에 제습기 시장 바짝… ‘위닉스’ 17% 폭

였다. 주가 역시 5580원에서 8700원으로 치솟았다.

대한뉴팜은 38.64%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대한뉴팜은 구제역이 경남 합천 지역으로 확산됐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난 6일 경남 합천군의 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은 뒤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 확진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러 커뮤티스가 35.37% 오르며 상승률 4위를 기록했다. 포비스타엔씨 33.41% 상승하며 5위에 자리했다. 컴투스는 지난 2분기 깜짝 실적(예상치)을 웃도는 실적) 발표에 급등세를 보였다.

성중화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컴투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1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4% 증가했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430억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성 연구원은 “‘뉴스의 신이 글로벌 빅히트를 기록한데 따른 것’이라며 “특히 지난 6월 서머너즈위의 글로벌 론칭 후 메가톤급 히트를 시현하면서 3

보였다. 상보는 지난주 18.79% 떨어지며 하락률 2위를, 한국팩키지는 18.22% 떨어지며 하락률 3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디스플레이 소재 필름인 광학필름, 차량 및 건축용 윈도우 필름, 미디어 필름, PP Sheet 필름, 산업제 특수 필름 사업 등을 영위하는 상보는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며 1만원선을 내렸다.

위닉스와 성우전자도 각각 17.65%, 17.44% 하락했다. 위닉스는 ‘마른 장마’ 탓에 제습기 인기가 시들해지며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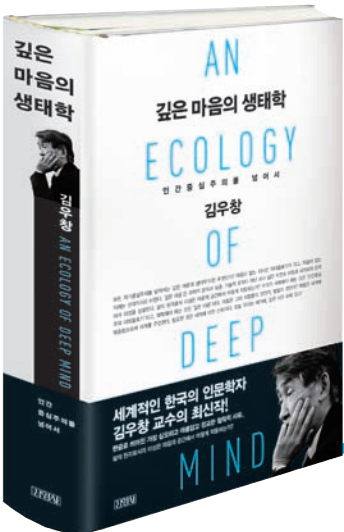
실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올 7월 강수량은 215.5밀리미터로 평년과 비교해 55%에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장마는 평년보다 4일 정도 짧은 12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덕신하우징 16.71% 하락세를 기록했다. PN풍년(-16.65%), 창해에탄올(-16.35%), 모다정보통신(-15.68%), 액트(-15.63%) 등도 동반하락했다.

이미정 기자 lmj@

“마음은 그대 사람들의 것인가, 별들의 것인가?”

이성은 마음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인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석학 김우창의 강철 같은 사유가 펼쳐내는 깊은 마음의 구조에 대한 놀라운 탐구! 문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수학, 생물학 등을 총망라한 압도적 지식, 눈부신 통찰을 통해 동서양 최초로 ‘이성과 마음’의 문제를 생생하게 파헤치다. 한글로 써서 가장 심오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철학적 사유!



김우창
양장 | 516쪽 | 27,000원

깊은 마음의 생태학

|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 AN ECOLOGY OF DEEP MIND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김우창

영문학자, 문명비평가, 문화사학자, 문학이론가, 평론가, 철학자. 서울대학교 영문학을 졸업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문학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와 대학원장으로 재직했고, 이후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세계적인 한국의 인문학자 김우창 교수의 최신작!

인간의 이성과 마음, 자연과 세계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찰한 역작! 김우창 교수의 사유 세계는 고대와 근대와 현대가 서로 비추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대화의 장이며, 우리의 궁색한 생각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잡이가 되어준 통찰의 등대이다. **도정일**(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 선생의 주옥같은 글들은 한글로 쓰여지는 글로서 이를 넘을 수 있는 수준의 글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글에 담긴 지식과 지혜의 깊이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조차 최고의 수준이다. **최창집**(고려대 명예교수) | 이 땅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청년들과 독자들이라면, 김우창이라는 산을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문광호**(충북대 독문과 교수)

포식자 등장에... ‘디올메디’ 내려놓은 큰손개미

‘기업사냥꾼’ 남궁견 50억 CB인수하며 경영권 참여 선언... 김철 41만주 처분 눈길

디올메디바이오에 투자한 ‘큰손개미’ 김철 원양산업 대표가 디올메디바이오 지분 41만 주가량을 장내에서 처분했다. 디올메디바이오의 코스타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 남궁견 고려포리머 회장이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경영권 참여를 선언한 상황이라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7월 10일 디올메디바이오 주식 41만 3000주를 장내에서 매각했다. 처분가는 주당 2672원으로 김 대표의 보유 지분은 5.07%에서 3.09%로 줄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재무적 투자자로 디올메디바이오에 투자하면서 주요 주주에 올랐다. 지난 2012년 12월 장지연 당시 디올클리닉 원장은 영상장비전문기업인 유니오씨앤씨(현 디올메디바이오) 주식 315만여주를 104억원에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팻뱅크(Fat Banking) 바이오사업을 추가하고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재무적투자자인 벨뷰바이오조합1호가 코마스로부터 200만주를 주당 2500원(총500억원)에 사들여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벨뷰바이오조합1호가 청산되면서 5명의 조합원에게 주식이 배당됐고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120만주(5.07%)를 배당받았다.

코스타 시장의 큰손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2001년 무한기술투자 경영권 분쟁 당시 우호세력 참여하기도 했으며, 남경건설과 파워벤처홀딩스의 대표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체인 원양산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장지연 현 디올메디컬허브 원장에

인수된 디올메디바이오의 올해부터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하정우 소속사로 유명한 코넥스 상장사 판타지오의 지분(4.9%)을 인수하기도 했으며 7월에는 여행업, 여행관련 서비스업, 화장품의 제조 등을 사업목적을 추가하도록 정관 일부를 변경하기도 했다.

아울러 디올메디바이오의 지난 7월 고려포리머를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고려포리머는 기업을 사들여 큰 차익을 남기고 파는 것으로 유명한 남궁견 회장이 이끌고 있는 회사다. 이번에 남궁 회장이 인수한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는 주식 213만6752주(7.76%)로 바꿀 수 있어 단숨에 기존 최대주주인 장지연 디올메디컬허브 원장이 보유한 주식 202만4139주보다 많은 잠재 물량을 보유하게 됐다.

고려포리머는 지난달 30일 고려포리머 관계사인 온누리여행사의 김학수 대표를 디올메디바이오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경영권 참여를 본격화했다. 디올메디바이오의 기존 대표이사 가운데 최형석 대표는 김 신임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이장우 대표는 물러났다.

김희진 기자 heejin@

다날, 팬엔터 지분 전량 처분

지분 6.28% 장내매도해 43% 수익

공시 돌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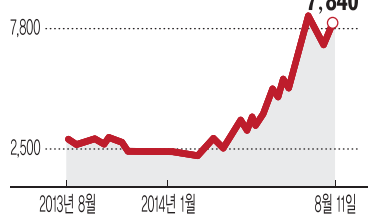
전자결제 전문업체 다날이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이하 팬엔터)의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다날은 팬엔터의 2대주주였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일 다날은 보유중인 팬엔터 지분 6.28%(58만270주)를 전량 장내매도해 지분율이 0%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다날은 지난달 3일부터 25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팬엔터 지분을 전량 매도해 총 42억7139만원을 회수했다. 다날이 지난해 2월 팬엔터의 3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 6.28%를 취득한 것을 고려하면 1년 5개월만에 42.7%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다만 이번 지분 매각으로 다날이 팬엔터의 2대주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2월 양사는 전략적 사업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지분투자를 실시했다.

지난해 2월 팬엔터는 다날의 계열사인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설립한 커

팬엔터테이먼트 주가 추이



피프랜차이즈 전문 회사인 '달콤'에 10억원을 투자해 지분 50%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달 다날엔터의 4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5.81%를 취득했다. 동시에 다날은 팬엔터의 30억원 규모 유증에 참여해 지분 6.28%를 취득한 것이다.

그러나 팬엔터가 투자한 다날엔터의 커피프랜차이즈 '달콤'은 지난해 2월 물적분할 설립 후 지난해 말 기준 매출 46억원, 순손실 17억원을 기록했다. 다날엔터도 지난해 6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팬엔터는 지난해 MBC '해를 품은 달' 이후 제작권수 감소 등으로 2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한류콘텐츠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1분기 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지난 7월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김미정 기자 mj@

증시 레이더

이라크·우크라 악재에

금통위 금리인하 주목

이번주(8월11-14일) 국내 증시는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하는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등 내부 이슈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25베이시스 포인트(bp)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주 후반 불거진 이라크 사태로 제동이 걸린 국내 증시에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은 일단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에서는 정부 경기부양책과의 정책공조를 위한 25bp 기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정책공조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재차 시장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는 점이다. 이에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올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달 만나 ‘경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의견을 함께 했다. 따라서 이 총재가 최 부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것이다.

문선영 기자 moon@

로엔케이, 가전 대기업과 사물인터넷 기기 개발

로엔케이가 국내 한 가전 대기업과 사물인터넷 스마트 가전기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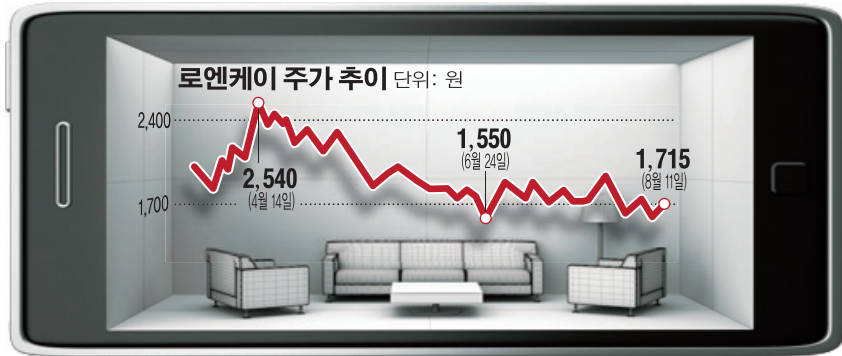
8일 관련업계 관계자는 “로엔케이가 국내 가전 대기업과 공동으로 스마트 가전 분야 관련 기기를 개발해 테스트 중”이라며 “가전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9월경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로엔케이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전기연구원과 협력해 수요반응(DR)을 위한 스마트홈 관련 정부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에스넷, 유양디앤유, 림네트, 효성ITX등과 함께 로엔케이는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로엔케이는 차세대 스마트 가전 기술 개발을 위한 PLC 모뎀 통신능력 향상 및 스마트가전용 기능 최적화를 위해 PLC칩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국내 가전 대기업과 함께 관련 기기 개발까지 나선 것이다.

로엔케이는 국내에서 한국전기연구원과 그리드워즈 단 두 곳에서만 인증 받은 오픈



ADR 2.0 공식인증(OpenADR 2.0a VEN)을 자체적으로 인증 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가전기기 업체들과 에너지 사용 업체들이 손쉽게 전력수요관리에 참여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로엔케이의 스마트 가전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로엔케이 관계자는 “국내 가전사와 공동으로 스마트 에너지 프로필(SEP) 2.0 소프트웨어 기술 및 OPEN

ADR 2.0 프로토콜과 연계한 내장형 PLC 모뎀을 탑재한 가전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PLC칩(K2)을 이용해 개발하고 있는 내장형 PLC모뎀은 가전기기에 장착해 가정 외부에서 수신되는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명령을 PLC통신을 통해 전달받아 에너지 절감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더포티스퀘어, 쓰리원 ‘엑시트’ 나섰다

통신부품업체 더포티스퀘어가 쓰리원에 대한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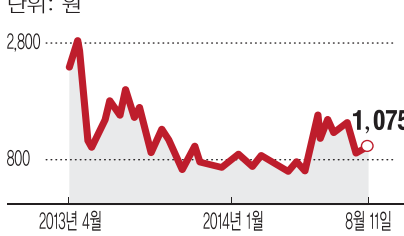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더포티스퀘어는 지난 7월 31일부터 이틀간 보유 중인 쓰리원 주식 105만 3372주를 장내에서 처분했다. 30일 60만주를 주당 1115원에, 31일 45만3372주를 1157원에 팔아치웠다.

이번 거래로 더포티스퀘어 보유지분은 10.01%에서 4.92%로 줄었으며 향후 추가 매각이 이어지더라도 5% 미만이라 보고 의무는 없다.

이번에 판 물량은 더포티스퀘어가 지난 7월 신주인수권(워런트)행사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쓰리원이 84억원 규모로 발행한 10회차 BW다.

워런트의 전환가격이 주당 723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거래로 4억3000만

쓰리원 주가 추이



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쓰리원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0.3% 감소한 16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부진 및 원가율 상승으로 인해 영업손실 12억원, 지배주주귀속순손실 19억원이 발생해 전년동기대비 적자지속 상태다.

김희진 기자 heejin@

ELLE
TIME & JEWELRY

ROAD TO SUMMER

56

해발 767m

가파른 미시령 옛길과

굽이진 계곡을

넘나드는 56번 도로.

올 여름, 아반떼 디젤의

놀라운 파워와 연비로

단숨에 오르다.



여름으로 가는 가장 파워풀한 드라이빙

아반떼 디젤

연비 16.2km/ℓ
최대 토크 28.5kg·m

8월 아반떼 구매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

3.9% 특별 저금리 혜택 / 자동차 보험료 50% 지원(최대 30만원) / 차령 5년 이상 차량 보유 고객대상 50만원 구매 지원

* 3.9% 저금리 또는 자동차 보험료 50% 지원 중 택 1 / 상기 모든 혜택은 아반떼 쿠페 제외
*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 참조

OVER THE CLASS
AVANTE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